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칸트 윤리학의 덕 개념과 불완전한
의무에 관한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진성

칸트 윤리학의 덕 개념과 불완전한 의무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엄 성 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진성

박진성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원장 김 병 환 (인)

부위원장 엄 성 우 (인)

위원 정 창 우 (인)

국문초록

칸트의 윤리학은 이성 중심의 윤리학으로, 일체의 경향성을 배제해야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분명 도덕적 행위에 있어 경향성은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으며,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도 경향성이 유일한 동기가 된다면 해당 행위는 가치가 없어진다. 필자는 현상계와 예지계에 속한 중첩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 경향성이 과연 도덕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의구심을 느꼈다. 칸트의 비판기 저작인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을 살펴보면 경향성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두드러지나, 비판기 이후 저작인 『도덕형이상학』,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을 살펴보면 감정, 덕스러움, 기쁨 또한 인간 삶에서, 윤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짚고 있다. 이성의 안내, 통제받은 선천적인 경향성은 다른 의무에 반하는 경향성을 제압하면서도 인간을 유덕하게 만들어 더욱 넓은 도덕적 완전성을 가능케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여, 칸트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칸트 윤리학 내에서 전통적으로 이해돼온 덕 개념 말고도 또 다른 덕 개념이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주로 칸트의 덕 개념은 경향성과 대립하며, 경향성을 극복하는 의미로 규명됐다. 다만 비판기 이후에 칸트는 의무이자 동시에 목적인 덕의무(불완전한 의무)를 말하며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필자는 완전한 의무, 예컨대 ‘거짓말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와 같은 것들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자신을 완전하게 하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차원뿐만 아니라 흔히 덕 윤리에서 말하는 좋음, 또는 수준(정도)이 함의되어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적 감정, 양심, 이웃 사랑, 자

신에 대한 존중을 대표적인 선형적 감정이라 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감사, 사랑, 존중은 의무이고, 공감 또한 대체로 의무라 말하며 이러한 감정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무에 합치되면서도, 의무에 반하는 경향성을 제압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향성들을 품성적으로 계발해야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타인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비판기 이후 칸트의 덕 개념은 이성에 부합하면서도 이성의 통제를 따르는 바람직한 경향성들을 계발하여 품성을 기르고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필자는 이처럼 칸트 윤리학 내에서 두 가지 덕 개념이 존재하며, 비판기 이후 덕 개념에는 경향성이 필수적임을,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을 계발하고 유덕한 자가 되어 완전한 의무와 더불어 불완전한 의무까지 수행한다면, 이성만 가지고 완전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보다 더욱 도덕적 완전성에 가깝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칸트 윤리학 체계 내에서 이성의 통제를 받은 경향성, 덕스러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규명하고 더불어 이러한 덕스러움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 불완전한 의무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칸트 윤리학 내에서도 인정되는 경향성이 있으며 경향성이 도덕적 완전성에 기여함을, 그리고 이 경향성은 덕 윤리에서 말하는 여타의 긍정적인 감정을 포괄하는 좋음을 우선하는 덕보단 의무에 합치되도록 돕되, 좋음이 결코 옳음에 우선해서는 안 되는, 옳음을 우선하는 덕에 기반을 둘을 드러내고자 한다. 원칙 제시와 이행으로 이해되어온 칸트 윤리학에서 품성의 계발은 도덕·윤리교육에서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경향성, 덕, 불완전한 의무, 옳음을 우선하는 덕, 품성 계발
학 번 : 2021-2645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5
제 2 장 칸트 윤리학의 두 가지 덕 개념	9
제 1 절 형식주의 윤리학에서의 경향성과 덕	9
1. 비판기 저작에서 드러난 경향성	9
2. 비판기 저작에서의 경향성과 도덕적 가치	16
3. 비판기 저작에서의 경향성과 덕의 관계	19
제 2 절 실질주의 윤리학에서의 경향성과 덕	23
1.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 드러난 경향성	23
2.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의 경향성과 도덕적 가치	25
3. 경향성의 양면과 덕 개념의 성립	29
제 3 장 실질주의 칸트 윤리학과 불완전한 의무 32	
제 1 절 덕 윤리와 덕의무	32
1. 덕 윤리의 덕 개념	32
2. 실질주의 칸트 윤리학의 덕 개념	34
3. 덕 윤리적 덕과 칸트적 덕의 비교	38
제 2 절 불완전한 의무의 성격과 방법론	42
1. 자신의 완전성 의무의 성격과 방법론	42
2. 타인의 행복 의무의 성격과 방법론	48
3. 품성의 계발과 덕스러운 칸트의 윤리학	50

제 4 장 칸트 덕론의 윤리교육적 함의	52
제 1 절 교과서에 드러난 칸트 윤리학의 교육적 한계	52
1.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드러난 칸트 이해	52
2. 감정적 측면의 소외	55
3. 일회적 측면의 도덕적 가치	59
제 2 절 통합적 윤리교육 교수체제	61
1. 원칙과 품성의 통합	61
2. 좋음과 옳음의 지향점과 그 관계	65
3. 칸트적 품성 계발과 교육법	67
제 5 장 결론	73
참고문헌	77
Abstract	83

표 목 차

[표 1] 자선의 형태들	21
[표 2] 칸트의 두 가지 덕 개념	31
[표 3] 칸트의 덕 개념들과 덕 윤리의 덕 개념의 비교	41
[표 4] 교학사 『윤리와 사상』 활동하기 146p	53
[표 5] 2023년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13p 4번	57
[표 6] 프랑케나의 상보적 윤리교육체제	63
[표 7] 칸트에 기반한 통합적 윤리교육 교수체제	64

그 립 목 차

[그림 1] 2023년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정답과 해설 23쪽·56	
[그림 2] 2023년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정답과 해설 5쪽·58	

- 칸트 저술의 인용 표기 방식 일러두기 -

본 연구에서 칸트 저술의 인용은 한국칸트학회 기획으로 출판된 국역본을 따르며, 본문에 표기된 'A100'은 원전의 초판 쪽수, 'B100'은 재판 쪽수다. 'III100'은 학술원판의 권수와 쪽수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칸트 저술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이중 『비판기 이전 저작III (1763~1777)』에서 인용되는 파트는 『부정량 개념을 철학에 도입하는 시도』이며, 『도덕형이상학』에서 인용되는 파트는 덕론임을 밝힌다.

- VSIII : Vorkritische SchriftenIII (1763~1777)
『비판기 이전 저작III (1763~1777)』, 『부정량 개념을 철학에 도입하는 시도』, 박진 옮김 (과주: 한길사, 2021)
- GMS :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도덕형이상학 정초』, 김석수 옮김 (과주: 한길사, 2019)
- KpV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실천이성비판』, 김종국 옮김 (과주: 한길사, 2019)
- MS : Die Metaphysik der Sitten
『도덕형이상학』, 이충진·김수배 옮김 (과주: 한길사, 2018)
- Anth :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홍우람·이진오 옮김 (과주: 한길사, 2021)
- Pädagogik : Über Pädagogik
『교육론』, 박찬구 옮김 (과주: 한길사, 202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세 가지 주류¹⁾인 의무론의 핵심이며 이성, 형이상학을 통해 도덕의 보편타당성을 세웠다. 이성적 존재자²⁾인 인간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마련되며, 이성을 통해 인간은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을 추론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윤리 절대주의³⁾적 입장은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도덕의 지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낀다.

윤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윤리는 당위적 지위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예컨대 지역,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윤리가 다르다면 윤리는 일종의 처세술 정도로 환원되며 그 당위에서도 위태롭다. 현시대의 윤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윤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기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윤리 회의주의, 혹은 사람의 주관, 시대마다 윤리가 다르다는 윤리 상대주의로 빠지기가 십상이다.

1) 쾌고감수능력에 따라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쾌락을 도덕의 척도로 삼은 공리주의, 이성을 통해 도덕형이상학으로서 보편타당한 객관적 정언명령을 마련한 칸트의 의무론, 행위가 아닌 행위자의 유덕한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덕 윤리가 그것이다.

2) 칸트가 이성적 존재자를 인간에 국한하지 않은 까닭은 이성을 지닌 존재가 인간만이라고 선불리 판단하지 않기 위함이다.

3)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윤리 절대주의라는 표현보단 윤리 보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윤리는 절대적이지 않더라도 보편적일 수 있는데, 예컨대 듀이(Dewey)와 같은 경우, 꽤 오랜 기간 구성원들이 윤리를 공유하고 그것이 실용성의 원리에 따라 차후에 수정된다면, 윤리는 보편적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윤리 절대주의와 윤리 보편주의는 시공간 영향 유무를 비롯하여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윤리 회의주의와 윤리 상대주의의 위협에서 마치 수학처럼 보편성을 마련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학문적 지위를 마련한 학자가 바로 칸트이다. 그는 정언명령이라는 도덕의 형식을 제시하여 윤리의 절대성을 세웠고, 당위적인 차원에서도 공고한 윤리적 지위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그의 이러한 이성주의 윤리 사상은 덕, 감정, 다양성에서 미흡한 측면을 보이게 되었고, 특히 현대 덕 윤리학자들에게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스톡커(Stocker) 같은 경우 칸트 윤리학이 ‘의무윤리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 등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을 경시함으로써 정신분열증의 문제를 야기한다(노영란, 2021a: 149, 재인용)’고 비판하였으며, 덕 윤리학자들을 제외하고도 다원성을 중시하는 현대철학자들의 경우 칸트 철학이 획일적이고 추상적이라며 공격을 가했다.

필자는 이런 배경에서 이성 중심의 윤리학이 가진 장점과 감성 중심의 윤리학이 가진 장점이 합쳐질 수는 없는지, 칸트 윤리학 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경향성(inclination)은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의무론과 같은 이성 중심의 윤리학은 보편성과 도덕⁴⁾의 지위를 지켜내지만, 융통성과 다양성, 초과 윤리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반면, 감성 중심의 윤리학은 융통성과 다양성, 초과 윤리적 행위의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윤리 상대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들이 가진 윤리학적 약점에 대하여 각 진영에서는 지금도 계속하여 보완하고 있는데, 예컨대, 칸트 연구자들은 주로 『도덕형이상학』에서 덕론 부분을 통해 칸트의 윤리학이 덕 윤리와 흡사한 점이 많다는 쪽으로 윤리적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으며, 덕 윤리의 경우 허스트하우스(Rosalind Hursthouse)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인 덕, 보편지(普遍知)에 주목하여 덕 규칙⁵⁾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윤리가

4) 도덕과 윤리의 의미를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칸트 또한 구분하지 않듯이, 본 논문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5)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유덕함은 유덕한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여, 덕 윤리는 순환논증에 빠지게 된다. 즉, 덕스러운 사람을 통해 덕을 알 수 있고, 덕스러운 사람은 덕을 갖고 있기에 덕스럽게 되는 것이다. 덕 윤리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에서 허스트하우스는 덕 규칙을 제시하여 순환논증에서 빠

절대적, 보편적이라는 입장에서 시작해 감정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태도가 훨씬 타당하다고 여겼고, 이에 따라 칸트 윤리학을 덕, 감정으로 접근해보는, 칸트 윤리학에서 덕과 감정에 대해 연구하여 칸트 윤리학을 확장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첫 번째로, 덕 윤리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비판들에 대응할 수 있으며, 칸트 윤리학이 정말 이성만을 강조한 윤리학인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원전을 통해 윤리에 대한 칸트적 입장을 총체적으로⁶⁾ 이해하고 이론을 상세하게 짚을 수 있을 것이며, 덕 윤리에서 말하는 ‘덕’과 『도덕형이상학』에서 말하는 ‘덕’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한 칸트의 불완전한 의무에 대해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칸트 윤리학에서 덕과 경향성이 불완전한 의무와 유관하다는 결론과 이성만 가지고 완전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보다 완전한 의무를 수행하며 불완전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욱 완전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완전한 의무는 완전한 도덕 체계나 더 많은 도덕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거짓말 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와 같은 것보다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초과 의무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더 많은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동기이자 방법이 바로 경향성이다. 의무에 반하는 경향성은 응당 선의지에 의해 제압되거나 극복되어야 하지만, 의무에 합치되는 경향성들은 오히려 이성이 포착하지 못하는 윤리적 관심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성에게 촉구하는 역할을 이행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경향성이 결코 이성보다 우선하여 작용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흔히 덕 윤리에서 말하는 좋음을 우선하는 덕이 아닌 옳음을 우선하는 덕임을 짚고자 한다.

필자는 선협 윤리학과 경험 윤리학, 형식적 윤리학과 실질적 윤리학,

져나온다. 더불어 덕 규칙은 덕 윤리에도 보편성을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6) 비판기에서 비판기 이후로 넘어가며 칸트 윤리학에 ‘균열’이 생겼다고 흔히 칸트 전공자들이 논한다. 이 칸트 윤리학의 균열에서 균열 자체로 인정하여 칸트 윤리학의 정합성을 비판하는 학자(문성학, 2022)도 있다.

비판기와 비판기 이후 칸트 윤리학의 균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칸트의 실질적 윤리학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윤리학에서 경향성, 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칸트 윤리학을 정리할 것이다. 경향성, 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불완전한 의무이다. 불완전한 의무에 대한 칸트의 정리가 명쾌하지 않으며, 칸트도 이에 구속성이 넓다며 애매하게 ‘불완전한’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비판기 이후 칸트 윤리학과 경향성, 덕, 불완전한 의무를 유기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칸트 윤리학 내에서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오던 덕 개념 외에도 또 다른 덕 개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특정 경향성들을 계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품성적 덕이다. 이런 품성적 덕을 더욱 배양한다면 그 사람은 유덕하게 되어 완전한 의무와 더불어 불완전한 의무까지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도덕적 완전성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칸트 윤리학이 이성 중심의 윤리학인 것은 맞지만, 칸트 윤리학 내에서 좋음을 고려하는 성격도 있으며, 품성의 계발, 칸트가 인정하는 경향성과 덕의 개입이 도덕적 완전성에 기여함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헌 연구에 기반을 두고 진행한다. 특히 칸트 전집에서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 『도덕형이상학』,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교육론』을 중심으로 다룬다.⁷⁾ 비판기 저작에 해당하는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과 비판기 이후 저작에 해당하는 『도덕형이상학』,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을 통해 칸트 사상의 다각적 측면을 조망하고자 한다. 칸트의 윤리 서적은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 『도덕형이상학』으로 손꼽히기에 해당 저작들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칸트 연구자들이 칸트의 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한 『도덕형이상학』의 덕론을 통해 칸트의 다른 윤리학적 모습을 탐색하여 덕과 경향성을 칸트 윤리학 체계 안에 포섭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2차 문헌과 논문들을 참고하여 칸트의 덕과 경향성에 대해 연구한 뒤, 그것이 불완전한 의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다루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비판기⁸⁾와 비판기 이후⁹⁾의 경향성¹⁰⁾, 덕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제 2장 1절에서는 비판기 칸트 윤리학의 목적을 밝히고 윤리적 동기와 가치가 무엇인지 짚을 것이다. 주지하듯, 칸트의 이성 중심의 윤리학은 주로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으로 초점이 맞춰져 연구됐다. 해당 부분에서 경향성의 의미는 어떻

7)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 『도덕형이상학』은 칸트의 윤리 저술이며,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은 윤리 저술은 아니지만, 윤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칸트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Robert B. Loudon, Reinhard Brandt가 해당한다. 한국칸트학회 해설에도 이에 덧붙이는 바이다.

8) 『순수이성비판』에서 『판단력비판』까지의 저작을 비판기 저작이라고 칭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로 칸트 윤리학의 핵심인 『도덕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을 중심으로 비판기 저작을 논할 것이다.

9) 『판단력비판』이후의 저작을 비판기 이후 저작이라고 칭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로 『도덕형이상학』,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10) 감정을 중심으로 욕구, 충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게 되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 2장 2절에서는 비판기 이후의 저서인 『도덕형이상학』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도덕형이상학』은 법론과 덕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덕론은 칸트의 ‘덕’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탐색할 수 있고, 덕 윤리에 대응하는 논거로도 많이 사용되어왔다. 칸트는 이 부분에서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를 제시한 뒤, 불완전한 의무가 객관적 필연성의 영역이 아니기에 구속성이 넓다는 점을 제시한다. 즉, 객관성 필연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이성의 개입만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성적 요소 외에 윤리적 판단에서 포함될 수 있는 경향성, 그중에서도 감정이 여기서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예측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경향성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 비판기와 비판기 이후의 경향성, 덕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도덕적 완전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다.

제 3장 1절에서는 칸트의 ‘덕’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때, 덕 윤리에서 말하는 ‘덕’ 개념과 칸트의 ‘덕’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게 개념을 고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칸트의 ‘덕’ 개념에서도 칸트 학자들의 해석이 나뉘는데, 첫 번째로 칸트의 ‘덕’은 덕 윤리의 ‘덕’과 명백히 다르다는 입장에서 독특한 칸트적 개념의 선의지와 밀접한 덕을 강조하기도 하며, 두 번째로 칸트의 ‘덕’이 덕 윤리의 ‘덕’과 매우 유사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에 칸트 윤리학을 덕 윤리로 포섭하는 입장이 있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에 좀 더 힘을 신겨, 품성의 계발적 측면에서 덕 윤리와 공유하는 부분은 있지만, 덕 윤리의 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제 3장 2절에서는 이러한 칸트의 덕 개념을 불완전한 의무와의 관계를 통해 좀 더 명확하고 세세하게 다룰 것이다. 불완전한 의무는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하며, 칸트 또한 명확하게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다.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특히, 허먼(Barbara Herman)의 『The Moral Habitat』을 참고하여 개념화하고자 한다. 불완전한 의무를 규명하며 그것이 경향성과 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 윤리학이 ‘이성’만 강조한 윤리학이 아님을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의무에는 자신에 대한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이 해당하는데¹¹⁾ 자신에 대한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에 의무적 성격을 규명하고 경향성과 덕이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지 제시할 것이다.

제 4장 1절에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집필된 칸트 윤리학의 교육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결과론적인 윤리학은 쾌,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동기적 차원에서도 이해하기가 쉽지만, 칸트의 의무론은 그러한 점들이 없기에 학생들이 다소 난해하게 받아들인다.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칸트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자 이성의 부산물, 이성의 특징인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다. 즉, 이 감정마저 이성의 영역에 포괄함으로써 동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비판기 이후 저술들의 내용까지 고려된다면 학생들이 좀 더 납득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비판기 시절의 칸트 윤리학만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 감정이 거의 배제되고 있으며, 한번 옳은 행위를 한 도덕 행위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난해하다.

제 4장 2절에서는 비판기와 비판기 이후 칸트적 모습을 모두 담아, 비판기의 윤리학은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제시하는 원칙이고, 비판기 이후 윤리학은 현실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품성적 계발이 담겨 있음에 기반하여 이들의 통합적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통합적 교육의 방법으로 칸트적 교육법이 담겨 있는 『교육론』을 주로 참고하여 논하고자 한다. 의무론적 윤리학과 목적론적 윤리학이 각기 추구하는 옳음과 좋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칸트가 말하는 품성 계발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윤리교육계에서는 이러한 품성 계발을 어떠한 교육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담고자 한다.

칸트 윤리학에서 불완전한 의무는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하다. 덕의무

11) Kant, 『도덕형이상학』, 이충진 김수배 옮김(2018), 한길사, 262p 참조.

라는 이름으로는 연구가 제법 존재하지만, 덕의무의 불완전성에 주목한 학자는 적다. 해외에서도 최근(2021)에서야 허먼(Barbara Herman)이 『The Moral Habitat』을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필자는 칸트 원전과 허먼의 연구, 불완전한 의무에 대한 송은섭(2019), 차승한(2020), 노영란(2021)의 논의를 주로 참고하여 나름의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칸트 원전을 읽으며, 불완전한 의무가 해명되기 위해선 칸트 윤리학의 덕과 경향성의 요소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칸트의 덕, 경향성, 불완전한 의무를 본 논문의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칸트 윤리학의 두 가지 덕 개념, 경향성의 다각도적 측면, 불완전한 의무, 이러한 칸트 덕론의 윤리교육적 함의를 조망하고자 한다.

제 2 장 칸트 윤리학의 두 가지 덕 개념

제 1 절 형식주의 윤리학에서의 경향성과 덕

1. 비판기 저작에서 드러난 경향성

칸트는 순수 도덕철학에 있어 철학적 접근 방식으로 아프리오리(a priori)¹²⁾한 방식을 채택한다. 이때의 칸트는 도덕철학이 경험적인 인간학을 빌려오지 않아야 우연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도덕은 선험의 영역인 형이상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다만 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이성의 월권을 지적했듯이, 신, 자유, 영혼불멸과 같은 요소들은 이성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에, 명확히 알 수 없는 신으로부터 도덕을 정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칸트가 택한 전략은 신이 아닌 이성에 의존하여 형이상학으로부터 도덕을 정초하는 것이었다.¹³⁾

12) 한국칸트학회에서 일어난 번역 논쟁 중의 핵심이 아프리오리(a priori)이다. 아프리오리의 번역을 두고 선험적, 초월적이라는 해석이 충돌하였다. 아프리오리를 초월적이라고 해석한다면 칸트를 오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되자 아프리오리는 발음 그대로, 트랜스젠덴탈(transzendent)은 선험적으로 번역하자는데 학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는 아프리오리(a priori)와 트랜스젠덴탈(transzendent)을 구분하여 쓰기도 하였으나, 이 둘의 의미 구분이 사라졌으며 칸트 철학 내에서 상징적으로 의미가 큰 아프리오리만이 발음 그대로 쓰이게 되었다.

13) 중세 시대에는 주로 신으로부터 도덕을 산출하였으나, 칸트는 이와 반대로 도덕으로부터 신을 요청한다. 이성으로부터 도덕의 체계를 건립한 칸트는 이성과 경향성, 행복을 『실천이성비판』 분석론에서 철저하게 분리한다. 행복은 감성계의 원리이고, 도덕은 예지계의 원리이기에 이 둘은 섞일 수 없다. 다만, 칸트에게 있어 최상선은 도덕이고 최고선은 도덕과 행복(덕에 상응하는)이 결합된 상태이다. 칸트는 인간의 최고선을 위해 분석론에서 수행한 철저한 분리 작업을

그는 이론이성(순수이성, 사변이성)과 실천이성을 분리하여 이성의 성질을 고찰한다.¹⁴⁾ 이론이성은 『순수이성비판』에서 지적했듯, 그 한계가 명확했다. 그는 이성만 가지고 지식에 접근할 경우 쉽게 이율배반¹⁵⁾에 빠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념론과 경험론의 조화를 꾀한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에서 감관에 무언가 맺히면 그것을 구상력(상상력)이 지성과 매개하여, 지성이 12범주¹⁶⁾로 분석하는 것이 칸트의 인식론이었다. 그의 관념론과 경험론의 중재는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는 말로도 유명하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던 칸트는 윤리학적 차원에서 감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실천적인 일에서 지성이 감성적 동기를 실천법칙들에서 제거하게 될 때 자기 장점을 드러낸다(GMS, A21 ; IV 404)는 것을 지적하며, 행복¹⁷⁾에 이성이 봉사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진다는(GMS, AIX) 것을 드러내었고¹⁸⁾ 이후, 그는 도덕 형이상학의 첫 단추로 도덕에 대한 평범한 이성 인식에서 철학적 인식으로 이행한다. 이어, 도덕이 경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대중적인 인식에서 경향성을 배제하고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도덕과 이성을 논한다.

변증론에서 신을 통해 결합한다. 즉, 칸트의 도덕철학 체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신이 요청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의 신으로부터 도덕을 산출한 방식과 역방향인, 도덕으로부터 신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14)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분리는 기능, 역할적 분리이지 이성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 아니다.

15)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명제일지라도 그 역 관계도 같이 성립하여 모순되는 두 명제 사이의 관계

16) 분량(전체성, 다수성, 단일성), 성질(실재성, 부정성, 제한성), 관계(실체성, 인과성, 상호성), 양상(가능성, 현존성, 필연성)

17) 욕구와 경향성의 충돌 전체

18) 칸트는 역설적으로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오히려 고통에 빠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사실의 예로, 통풍환자를 제시한다. 만약 통풍환자가 눈앞에 있는 산해진미(山海珍味)와 술을 직접적으로 추구한다면 그는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내일부터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GMS, A12 참조.

‘오히려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형이상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도덕을 그저 평범하고 실천적으로 사용할 경우라도, 특히 도덕적 가르침을 그렇게 할 경우라도, 이 도덕을 진정한 원리들 위에 세움으로써 순수한 도덕적 마음씨를 일어나게 하여 세계에서 최고로 선한 것을 향하도록 사람들 마음에 이를 심어두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GMS, A35).’

칸트는 도덕이 형이상학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다면 원리를 세울 수 없고, 사람들이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것을 향한 존경이라는 마음까지 가질 수 없게 되어 도덕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는 형이상학이라는 공간에서 가능한 것이고, 형이상학으로부터 도출된 도덕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성한 도덕법칙이기에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존경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경험적인 것, 행복, 감정, 욕구, 충동으로부터 도덕을 정초하게 된다면 도덕은 객관적 필연성을 잃어버리고 그 원리와 의미가 퇴색된다. 이에 대해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에 반해 인간성이 지닌 특수한 자연적 소질에서 나오는 것, 어떤 감정이나, 성벽에서 나오는 것, 심지어 어쩌면 인간 이성에 고유한 것이지만,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는 반드시 타당한 것이 아닌 특수한 성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준칙을 줄 수는 있지만, 법칙을 줄 수는 없다(GMS, A60).’

‘경험적인 작용인이나 법칙 가운데서 원리를 찾아내려는 태만함이나 아주 저급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그리고 자주 경고해도 지나치지 않는다(GMS, A61).’

‘경험적 원리는 도덕법칙이 그것에 근거하도록 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 도덕법칙의 근거를 인간 본성의 특수한 습성이나 그것이 처한 우연한 상황으로부터 구한다면, 도덕법칙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구분 없이 타당해야 하는 보편성과 이로 인해 도덕법칙에 과해지는 무조건적인 실천적 필연성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GMS, A90).’

이처럼 경험적인 원리나 경향성은 객관성을 도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칸트는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경험적인 요소나 경향성으로부터 원리(도덕법칙)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태만’하다거나 ‘저급한 사고방식’이라고까지 비난한다. 감성의 자극을 통해 그것이 동기가 되어 행위하는 것은 단지 주관적 필연성(당위)¹⁹⁾에 불과하다. 다만, 이성을 통해 우리는 정언명령(定言命令), 구체적으로 보편화 정칙²⁰⁾을 승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준칙을 최대한 법칙과 가깝게 수 있다.

형이상학에 의존하지 않은 경험적인 것들은 모든 존재자에게 각기 다른 환경으로 경험되고, 감성계에 존재하는 존재자들은 서로 다른 감성적 능력으로 감정을 상이하게 사용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로서 이성이라는 특질이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다.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여 자연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들을 보편화해볼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보편화 정칙을 통해 증명되는 도덕법칙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속하는 ‘거짓말하지 마라’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실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그 효력이 발휘되는데, 거짓말이 보편화되면 그 내재 원리상 모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기에 ‘거짓말하지 마라’는 명백한 도덕법칙에 해당하게 된다. 이때, 나의 명예를 위해, 타인의 기분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라는 어떠한 가언적(조건적) 요소도 개입할 수 없으며, 그것이 옳தாக 이성으로 파악하였을 때, 보편화 정칙을 통과할 수 있기에 도덕법칙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19) 칸트는 당위와 도덕을 분리함으로써 가언명령(假言命令)과 정언명령(定言命令)을 구분한다. 전자는 특정한 욕구로 인해 필연성이 생기지만, 후자는 의무 자체가 구속력을 지니며 욕구와는 무관하게 객관적 필연성을 담보한다.

20) ‘네 의지의 준칙(격률)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이며, 여기서 보편화 정칙이 자연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축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데, 보편화 정칙과는 별개로 자연법칙을 지켜야 한다는 또 다른 정칙을 추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칸트는 자살 금지의 의무, 거짓 약속 금지의 의무, 자기계발의 의무, 곤경에 처한 이웃돕기의 의무 등이 보편화 정칙을 통과한다고 입증한다.

이처럼 도덕법칙을 파악하는 데는 어떠한 후험적인, 경험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 경험, 감정, 욕구, 충동은 각기 다른 주관에 속하는 영역인데, 이러한 경험적인 요소 없이도 한갓 인간의 이성만으로 도덕법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윤리학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며, 각기 다른 주관의 영역이기에 보편적 학문으로 자리 지워질 수도 없다. 즉, 윤리가 보편적 학문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고 명확한 윤리의 길을 보이기 위해선 감정을 배제해야만 한다.

그런데, 윤리학에서 감정을 배제한 칸트에게 풀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도덕 행위의 동기, 추동의 문제이다. 윤리를 학문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경향성을 배제한 칸트는 인간이 윤리를 알아도 윤리를 행할 수 있는, 행해야만 하는 문제를 풀어야만 했다. 주지하듯, 흠은 인간의 동기가 감정(정념)으로부터 비롯됨을 신랄하게 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칸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은 실제로 도덕법칙에 관심을 두며, 이 관심과 관련하여 우리 안에 기초로 놓여 있는 것을 도덕감정이라고 부른다. ... 오히려 도덕 감정은 법칙이 의지에 미치는 주관적 결과로 여겨져야 하므로 이 감정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성뿐이다(GMS, A122).’

이렇듯, 칸트에게 있어 경향성의 배제로 인한 동기 문제는 도덕법칙에 대한 관심, 즉, 도덕감정으로 제시되며, 칸트는 그것을 특별한 종류의 원인성이라고 규정짓는다. 여기에서 도덕감정이란 이성과 독립된 그 무엇이 아닌 이성에 의해 제시되는 특별한 감정이다. 이 특별한 감정은 경험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이성의 부산물, 혹은 이성의 특질로 이해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와 마찬가지로 『실천이성비판』에서 경향성이 여전히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준칙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칙이나 도덕 원리로는 불가능함을 드러낸다.

‘쾌 혹은 불쾌를 (쾌와 불쾌는 언제나 경험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타당할 수 없다) 수용하는 주관적 조건

에만 근거를 두는 원리는 사실 꽤, 불쾌를 느끼는 주관에 위한 그들의 준칙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이 원리에 객관적 필연성, 즉 아프리오리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 자체를 위한 법칙으로 쓰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결코 실천법칙을 제공할 수 없다(KpV, A39).’

객관적 필연성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즉 아프리오리하게 정초되어야 하며, 경험, 감정과 같은 요소들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타당할 수 없다는 것이 위의 인용문을 통해 드러난다. 법칙과 도덕 원리라는 것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동일하게 타당해야 그 보편성이 마련되는 것인데, 감정은 각기 다르게 느껴지며 경험에 따라 다르게 촉발되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법칙의 요소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성계에 속한 인간들은 모두가 똑같이 감성계의 원리인 행복을 보편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가? 이에 대한 칸트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이성적이지만 유한한 존재자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행복은 이 존재자의 욕구능력을 불가피하게 규정하는 근거다. 자신의 전체 현존에 대한 만족이란 것이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원래 소유가 아니고 독립적 자족 의식을 전제하는 지복도 아니며 유한한 본성 자체에 의해 이 존재자에게 부과된 문제, 즉 이 존재자가 결핍적 존재라서 부과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질료적 규정근거를 주관이 순전히 경험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과제를 법칙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칙은 객관적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 똑같은 의지 규정근거를 내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 자기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만 하는지는 저마다 특수한 꽤, 불쾌 감정에 달려 있고 한 주관에서조차 꽤, 불쾌 감정 변화에 따른 상이한 욕구에 달려 있다(KpV, A46).’

모든 인간은 예지계의 성원이기도 하면서 감성계의 성원이기도 하기에 행복²¹⁾해지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행복의 기준은 꽤, 불쾌라는 감정

21) 삶의 쾌적함을 의식하는 것이 행복이다(KpV, A41).

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주관적 영역이기에 법칙과는 무관하다. 더불어 행복을 도덕 원리로 세우게 되면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더욱 생긴다고 칸트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일은 어떻게 사려 깊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욕망이 보편적이라는 이유로, 따라서 저마다 행복을 의지의 규정근거로 삼을 때 의존하는 준칙 역시 보편적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태를 보편적인 실천법칙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보편적 자연법칙이 모든 것은 조화롭게 만드는 반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준칙에 법칙의 보편성을 부여하려 할 경우 조화의 정반대, 즉 준칙 자체와 준칙의 의도가 격렬히 충돌하고 서로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충돌하는 까닭은 이 경우 모든 이의 의지가 하나이자 동일한 객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객관을 (자기 자신의 안녕을) 갖는다는 데 있다. 이 저마다의 객관은 각기 자기 지향적 타인들의 의도와 우연적으로 조화할 수도 있지만 법칙이 되기엔 한참 부족하다. … 경향성들을 예외 없이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즉 전면적으로 조화하면서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KpV, A50-A51).’

인류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저마다의 준칙을 내세우며 충돌할 것이다. 나의 안녕만을 제일 우선하는 태도로 준칙을 세운다면 사람들은 갈등하기에, 갈등을 부추기는 준칙은 도덕 원리의 자격이 없어진다. 도덕 원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조화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행복, 경향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도덕 원리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칸트는 도덕성과 자기애가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자기 행복의 원리를 우선하면 도덕성이 완전히 파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행복의 원리는 준칙을 줄 수는 있지만, 의지의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결코 줄 수 없다. … 행복에 관한 각각의 판단은 의견, 즉 경험적인 데다가 그 자체가 매우 가변적인 각자 의견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가장 빈번히 적용하는 규칙은 있을 수 있어도 언제나 필연적으로 타당할 수밖에 없는 규칙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KpV, A63).’

‘도덕법칙은 자기 행복의 원리와 다른 어떤 것임이 틀림없다(KpV, A65).’

칸트는 분명 『실천이성비판』에서 행복이 중요한 것이라 말한다. 다만 그것은 매우 주관적 영역에 속해있기에 도덕 원리의 요소가 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타당할 수 없다. 따라서 행복과 도덕은 완전히 분리되나, 최고선을 위해 그는 신을 요청하여, 섞일 수 없는 이 둘을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인간 삶에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도덕과는 분리시키되,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통해 통합하여 도덕 체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비판기 저작에서의 경향성과 도덕적 가치

비판기의 그는 경향성, 행복이 도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대중과 학자 대부분의 시대적 오판을 지적한다. 의지의 대상을 찾아 이 대상을 법칙의 질료와 근거로 삼았기에 쾌고감수능력이 곧 도덕 판단의 준거가 되었는데, 아프리오리하게 직접 의지를 규정하고 비로소 이런 의지에 적합하게 대상을 규정하는 법칙을 먼저 탐구해야 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비단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윤리를 학문으로서 건립하기 위한 세세한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경향성은 이성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도 이성과 반대되는 성질로 묘사되며 경계해야만 하는 동물적 특질로 전락하였다. 다만, 여기서 그가 경향성을 도덕법칙에 대립되는 측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만, 이성을 선한 것으로만 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성도 오용될 수 있으며, 경향성도 가장 강력한 도덕 행위의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감정을 경시했다기보다 윤리를 도덕법칙으로서 확립하고자 함에 주목해야 한다. 그 또한 이런 부분을 인지하였는지, 비판기에 도덕법칙과 경향성을 철저하게 분리하였고, 비판기 이후에는 오히

려 경향성과 덕을 포괄하며 구체적인 목적론적 성격의 윤리학을 『도덕 형이상학』에 담고 있다.

비판기에도 경향성이 다소 모호하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덕 법칙의 형식적 체계에서 경향성은 필요가 없지만, 실질적 도덕에서 경향성이 윤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필자는 짐작한다.

‘나는 인간애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 대부분이 그래도 여전히 의무에 합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한다(GMS, A27).’

인간애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감정은 인과적 필연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의무로 나아가는 설계에서 제외되었지만,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을 통해서도 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정은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우연적으로 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를 촉발하는 감정은 형식주의 윤리학에 의해 희생되었지만, 칸트는 감정을 통해 우리가 예외를 설정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우리의 경향성에 이득이 되도록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보려 한다. … 우리는 어떤 한 원리가 객관적으로는 보편적 법칙으로서 필연적이지만, 주관적으로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행위를 한 번은 전적으로 이성에 맞는 의지에서 관찰하지만, 또한 그 다음에는 바로 이 행위를 경향성에 영향을 받는 의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어떤 모순도 없지만, 이성의 수칙에 대한 경향성의 저항은 명백히 존재한다. 이로써 원리가 지닌 보편성은 단순한 일반선으로 전환되며, 이로서 실천적 이성의 원리는 중도에서 준칙과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공정하게 내린 판단에서 볼 때, 물론 이런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로부터 우리가 정언명령의 타당성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가 보기에 사소하지만 피할 수 없는 몇몇 예외를 우리 자신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GMS, A58).’

비판기에서 경향성은 분명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다만, 칸트는 경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 인지하고 있었다. 엄격한 학문으로서의 도덕은 그 경계가 매우 명확하여 옳고 그름을 명확히 나눈다. 이 경계를 세우는데 있어 이성만 철저한 선을 만들어내지만, 감정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좋음과 나쁨의 차원으로 모호한 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성으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보편적 법칙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감정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주관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명 감정을 제외시키는 것이 도덕적 지침이기는 하나,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이듯, 감정을 통해 ‘피할 수 없는 몇몇 예외를 우리 자신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경향성은 주관적이기에 보편화될 수 없지만, 칸트의 정언명령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을 꼽으라면 역시 보편화 정칙이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 이 보편화 정칙을 인지하고 또 그것에 따라 실천할 수 있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지위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 자체의 정칙(인간주의)은 보편화 정칙(보편주의)과 별도로 분리된 정칙이 아니라 보편화 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보편화 정칙에는 경향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목적 자체의 정칙은 경향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그의 제2 정언명령²²⁾은 단순히 공허한 형식주의(empty formalism)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 않다.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에게는 다양한 측면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 윤리학에 대해 공허한 형식주의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칸트는 비판기 이후 의무이자 동시에 목적이라는 개념을 고안한다. 이는 제2 정언명령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의무이자 동시에 목적이기에 형식주의를 뛰어넘는다. 예컨대 타자의 기쁨에 깊이 공감하며 타자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은 의

22) 정확히 말하자면,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해석과,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는 해석이 병행한다. 두 해석 모두 인격의 수단 가능성을 인정한다.

무이자 동시에 목적이 된다. 즉, 형식주의 차원에서 경향성은 도덕적 가치가 없으나, 목적론적 차원, 실질주의적 차원으로 전환되며 경향성이 도덕적 행위에 있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차원의 이행으로, 문성학(2022)은 목적 자체의 정식 때문에 칸트 윤리학에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한다.

3. 비판기 저작에서의 경향성과 덕의 관계

칸트는 윤리를 학문으로서 정초하기 위해 당시 대중적 인식이었던 경험, 감정으로부터 윤리를 분리해낸다. 이 과정에서 경향성이 압도되거나 배제하는 것만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GMS, A15)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경향성 전부가 이성에 반하는 듯한 서술을 강행한다. 이런 정초의 표현으로 인해 비판기 저작에서는 경향성과 덕의 관계가 대립의 양상을 띠게 된다.

주로 윤리학 전공자들은 비판기 저작에 주목하였으며, 이런 비판기 저작의 특징으로 인해 칸트만의 고유한 덕 개념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감정과 전적으로 독립한 의지와 관계이며, 도덕적 요구에 대립하는 경향성을 지배하는 능력이다(맹주만, 2011 ; 이주석, 2015 ; 차승한, 2020).

가령 칸트 저작에서 등장하는 ‘행복한 자선가’에 대해 살펴보면, 칸트는 행복한 자선가보다, 행복하지 않은 자선가를 우선한다는 주장이 있다(맹주만, 2010). 그 까닭으로, 행복한 자선가는 본인이 행복할 때만 자선을 하기에, 즉, 도덕 행위의 원인, 동기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기반하지 않기에 도덕적 가치가 없는 반면, 행복하지 않은 자선가는 본인의 행복과는 관계없이 늘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기반하여 자선하기 때문이다. 칸트 원문에는 분명 경향성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이미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알게 된 모든 행위를, 비록 그것들이 이러저러한 의도에 유용하다고 해도 무시한다. 이런 행위들은 의무와 충돌하기조차 하므로 이것들이 의무에서 일어난 것일 수 있는지는 애초부터 이들 행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이지만, 사람들이 이 행위들을 하려는 직접적인 어떤 경향성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다른 경향성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몰리게 되어 하게 된 행위도 나는 무시한다(GMS, A8).’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능력이 아직 있는데도 자기 곤궁에 지나치게 몰두해 다른 사람의 곤궁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향성도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더는 자극하지 못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냉담에서 벗어나 그 행위를 어떤 경향성도 없이 오로지 의무에서만 수행한다면, 그 행위는 이제야말로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GMS, A11).’

칸트는 명백히 단순 의무에만 합치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가 없기에 무시해도 괜찮다고 밝힌다. 즉, 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행위가 비롯되어야 도덕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위 인용문에서 ‘어떤 경향성도 없이 오로지 의무에서만 수행한다면, 그 행위는 이제야말로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GMS, A11)’라는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여기서 정말 행복한 자선가에 비해 행복하지 않은 자선가의 행위가 우선하여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자선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자선의 형태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복이 도덕 행위의 원인이 되어 자선한, 행복한 자선가 ②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자선하였고, 그 결과로 행복한 자선가 ③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강한 원인이 되어 자선하였지만, 타인을 도우면 행복해지는 것 또한 원인으로 작용한 행복한 자선가 ④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만 도덕 행위를 한 행복하지 않은 자선가 |
|---|

비판기 저작, 학문으로서의 윤리(형식주의 윤리학)에 주목한 학자들은 모든 경향성을 배제하며 오로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만 근거해야 도덕 행위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④만이 경향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슬프거나 행복할 때도 늘 자선하기에 칸트가 인정하는 자선의 형태라고 여겨진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여기서 ④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도덕 행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로, ②, ③이 있다. 칸트는 행복이 간접적 의무라고 밝힌 바 있으며(GMS, A12) 인간에게 늘 불안에 빠져서 도덕 행위를 하라고 말한 바 없다. 그럼에도 비판기 저작의 목적이 윤리를 학문으로서 성립시키는 것에 있기에, 칸트는 경향성을 비롯한 행복을 자신의 윤리 체계에 넣지 못하고, 비판적인 서술을 두드러지게 한다. 이런 점만을 주목한 학자들은 칸트의 덕 개념을 경향성을 지배, 또는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인 선의지와 긴밀한 관계로 결부시켰다. 즉, 칸트의 덕 개념은 경향성, 감정과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적대시하여 모조리 제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²³⁾ 비판기 저작에

23) 구체적으로 Henson(1979)은 칸트 윤리학 내에서 두 가지 모델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 Battle-citation model과 fitness-report model이 그것이다. 전자는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두드러지며, 후자는 『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 강조된다. 이에 대해 필자와 마찬가지로, Henson(1979)은 fitness-report model에서 설령 다른 동기들이 현존하고, 그것들만으로도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의무에 대한 존경 또한 현존하고 그

서는 덕과 경향성이 어떠한 유기적 관계도 맺지 못한 채, 단지 투쟁 중에 있는 상태일 뿐이다.

것만으로도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하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비판기 저서인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나온 행복한 자선가 사례에 담긴 칸트의 의도는 경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Borges(2002) 또한 동정의 존재만으로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는 행동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제 2 절 실질주의 윤리학에서의 경향성과 덕

1.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 드러난 경향성

비판기 저작에서는 오로지 도덕적 감정으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만 인정하며 여타의 감정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감정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고,²⁴⁾ 이성의 부산물, 이성적 존재자의 특징으로 귀결되었다. 이성적 존재자라면 누구나 도덕법칙을 인식하는 순간, 존경의 마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선형적 감정이자, 이성의 특징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향성²⁵⁾의 독자적 지위는 결단코 허용되지 않았던 그의 체계 안에서 비판기 이후 저작, 특히 『도덕형이상학』 덕론 부분에서 다양한 경향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²⁶⁾ 우선 그는 도덕적 감정(moralische Gefühle)에 대해 언급하며, 도덕적 감정이란 ‘우리 행위가 의무 법칙과 합치하거나 충돌한다는 의식에서 나타나는 쾌나 불쾌에 대한 감수성(MS-T, A36)’으로 규정한다.²⁷⁾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감정이 있지 않다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한다.

24) Holberg(2016)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감정, 혹은 도덕적 쾌락으로 이해하였을 때, 의무를 다하는 기쁨은 우리가 이 의무로 돌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때 존경의 감정은 의지적 차원에서 도덕적 힘의 필수적인 요소인 도덕법칙에 대한 사랑으로 변모한다고 주장한다.

25) 비판기 칸트는 감정, 욕구, 충동 모두를 포괄하여 경향성으로 규정하고 배제했지만, 비판기 이후 칸트는 주로 경향성 중에 일부 감정들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필자가 이후에 작성하는 경향성들은 감정의 의미가 강하다.

26) McCarty(1993)는 칸트가 도덕적 감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감정을 병리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덕형이상학』에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

27)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도덕적 감정이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었다면, 비판기 이후 실질주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감정이 해당 문장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뒤이어 그는, ‘양심(das Gewissen) 역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심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모든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서 양심을 근원적으로 자신 안에 갖고 있다(MS-T, A38)’라고 언급하고, 이웃 사랑 또한 중요한 감정임을 짚는다. 주의할 점은, 칸트적 사랑(Liebe des Wohlgefallens)의 의미는 일상어에서 통용되는 의미보단, 호의, 친절, 만족에 대한 사랑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의무다. 누군가 이 의무를 자주 행하고 또 친절한 의도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그는 자기가 친절을 베풀어준 그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즉시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랑을 매개로 (나중에)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네 이웃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친절이 너의 내면에 (친절함 전반에 대한 경향의 완성으로서) 인간사랑을 가져온다는 것을 뜻한다(MS-T, A41).’

자신에 대한 존중(Achtung) 또한, ‘내면의 법칙이 그로 하여금 그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을 불가피하게 강요(MS-T, A42)’하기에 이 역시 배제되어야 하는 경향성은 아니다. 이처럼 도덕적 감정, 양심, 이웃 사랑,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는 감정들은 경향의 완성을 추구해야 하며, 바람직하게 쓰였다. ‘이러한 소질들을 소유하는 것은 의무로 간주될 수 없지만, 오히려 이 소질들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것들의 힘으로 의무를 질 수 있게 된다(MS-T, A36).’

이외에도 그는 자선(der Wohltätigkeit), 감사(der Dankbarkeit), 공감(Mitfreude und Mitleid), 존중(observantia aliis praestanda)까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칸트는 자선과 사랑, 존중은 의무이며 공감은 대체로 의무라고 말한다(MS-T, A130). 자선을 통해 인간은 타인의 행복을 보며 스스로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받은 친절함에 대해서 (설령 행동 없이 호의만 상대방이 가졌더라도) 그에 따른 책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의무인 공감은 간접 의무로도 불리며, 단순한 연민과는 구분된다. 상대방을 연민한다는 것은 ‘세계 안

의 해악을 증대하는 것(MS-T, A131)'이기에, 상대방의 인격을 나의 인격보다 낮추어보는 것이기에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다. 여기서 칸트적 공감은 '그들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동참²⁸⁾하는 것이다(MS-T, A132).' 주지하듯, 존중은 인간주의(제2 정언명령)에 따라 자신과 타인이 그 대상이다.

그렇다면 칸트 윤리학에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비판기 저작에서 경향성을 배제하고, 경향성과 투쟁하여 이기려는 그의 독특성이 비판기 이후 저작에 접어들며, 여러 경향성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경향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면, 칸트 윤리학에서 의미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하며, 비판기 저작 때의 칸트 윤리학과 비판기 이후 칸트 윤리학에서 메울 수 없는 간극, 즉, 균열이 발생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다만, 필자는 해소될 수 있는 균열이라는 입장에서 비판기 이후 경향성들을 다룰 것이다.

2.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의 경향성과 도덕적 가치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는 도덕적 감정, 양심, 이웃 사랑, 자신에 대한 존중, 더 나아가 자선, 감사, 공감, 존중까지 실천이성에서 비롯된 경향성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이 경향성들은 독자적으로 과연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필자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비록 이러한 감정들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칸트에게 있어 도덕적 가치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응당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필수적으로 갖추어 행해져야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 위에서 제시된 경

28) 칸트는 이에 대해 '생필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장소를 찾는 것이고, 또 자신이 방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공감을 피하기 위해 병실이나 죄인들이 있는 감옥 같은 장소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다(MS, 132).'라고 말하며, 먼발치에서 그들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느끼라고 제시한다.

향성들은 의무에 대립하지 않고, 실천이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성적 작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들을 포괄한다.²⁹⁾ 실제 인간 삶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해당 경향을 통해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독자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향들은 필히 이성과 함께 작용해야 하며, 이성적 의미로 사용되어 행동 돼야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칸트가 인정하는 경향성들은 그 자체로 흔히 이야기되는 감정들이 아니다. 아무리 도덕적 감정, 양심, 이웃 사랑, 자신에 대한 존중, 자선, 감사, 공감, 존중이라도 그것이 맹목적이거나 무절제한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이성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이성의 통제를 받으며 적절한 상황에서, 절제된 차원으로 쓰인다.³⁰⁾ 이런 경향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통제하는 것은 응당 이성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 경향성들은 독자적으로 성립한다기보다, 이성적 의미로서, 이성과 함께 쓰여야만 도덕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성과 이러한 경향성이 함께 쓰일 때, 우리는 진정 도덕적 행위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³¹⁾

이외에도 칸트는 감성적 쾌(감관에 의한 쾌, 상상력에 의한 쾌), 지성적 쾌(표현될 수 있는 개념에 의한 쾌, 이념에 의한 쾌)로 나눈다(Anth,

29) 이에 대해 송은섭(2019)은 아래 제시된 『도덕형이상학』 덕론의 A130을 인용하며 칸트가 감수성(특히 공감)에 독자적인 의무를 부여했다고 지적한다(송은섭, 2019: 32). 그런데 송은섭(2019)도 필자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독자적으로 인정되기보다, 이성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고 말한다(송은섭, 2019: 33).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것(도덕적 공감)은 타인의 만족 상태나 고통 상태에 대하여 쾌나 불쾌를 느끼는 (그래서 감성적 이라 불려야 하는) 감각적 감정(공감, 참여적 감정)인데, 자연은 이미 이것에 대한 감수성을 인간 안에 심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을 활동적이고 이성적인 호의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록 조건적 의무이기는 할지라도, 인간성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져야 하는 하나의 특별한 의무다(MS-T, A130).’

30) 이런 측면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중용(Golden Mean)과 비슷해 보인다.

31) 그러한 능력(경향성)의 부재는 타인의 복지에 대한 헌신의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Oakley(1990) 또한 지적한다(Oakley, 1990: 445).

BA168; VII230). 여기서 칸트는 후자를 강조하며 걱정과 열정을 구분하듯, 감수성은 침착함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감수성은 쾌의 상태는 물론이고 불쾌의 상태도 허용하거나 이를 마음에서 멀리할 수도 있는 능력이자 강점이며, 따라서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다(Anth, BA177).’ 그렇기에 감수성을 증진하는 일은 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으며 도덕법칙에 대립되는 경향성들을 제압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칸트는 의지와 감정이 충분히 섞일 수 있는 것을 시사하며, 의지와 감정이 섞인 것은 하나의 숙고된 사유의 성향이라고까지 말한다(Anth, BA178).

의무에 부합하는 경향성들 중 하나인 공감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동에 유용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의무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자의 동정은 비이성적인 감정이지만, 전자는 이성에 의해 배양되고 훈련될 수 있다. 이런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일방적으로 발동되는 수동적 감정이 아니며 합리적 감정으로서, 언제 공감, 동정심을 촉발시킬지 결정하는 능동적 감정이다(Borges, 2002, 192-195). 칸트가 비판기 이후에 굳이 이러한 서술을 한 까닭은 도덕 감정의 긍정적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칸트가 덕을 위해 무정념(Apathie)이 필연적으로 전제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MS-T, XVI). 이때의 무정념은 경향성이 모두 배제된 상태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칸트는 무정념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무격정을 뜻한 것이라 부연한다(차승환, 2020: 328, 재인용).’ 이로써 칸트가 인정하는 경향성은 첫 번째로, 의무에 반하는 감정이 아니며, 두 번째로, 의무에 부합하는 감정이고, 세 번째로, 이성적으로 항상 통제 가능한 상태에 놓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칸트의 윤리학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구별만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도덕법칙의 부합 여부를 두고,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윤리학을 비롯한 의무론, 옳음의 윤리학은 구체적인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오해를 받아왔다. 따라서 아무리 경향성을 계발하여 의무적 행위를 한다해도 결국 옳음의 측면에서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필자는 비판기 이전 저작에서 드러나는 개념인 ‘부정량’에서 칸트가 단순한 이분법의 도덕적 평가를 두지 않았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인간에게 어떤 경우 의무의 규칙에 상충하는 정욕[걱정]. 예컨대, 금전욕을 10 정도 주어보자. 그리고 이웃 사랑의 원칙을 실행하려는 노력을 12 정도 주어보자. 그 결과는 2 정도이며 그는 그만큼 자애롭고 친절한 사람이 될 것이다. 또 한 사람에게는 3 정도의 금전욕과 7 정도의 구속성[책무] 원칙에 따르는 능력을 주어보자. 그 경우 실제 나타나는 선행은 4 정도가 되며 그는 금전욕과 싸운 끝에 4 정도 타인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정욕[걱정]이 자연적인 것이고 비자의적으로 갖춰진 것이라면 도덕적 가치에서는 전자의 선행이 후자의 선행보다 높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을 살아 있는 힘으로 평가한다면 후자 쪽이 전자를 능가한다(VSⅢ, A63-A64).’

위 인용문을 분석해보자면, 첫 번째 사람은, $-10(\text{금전욕}) + 12(\text{이웃 사랑의 원칙을 실행하려는 노력})$ 로 2 정도의 도덕적 가치의 행위를 해내었으며, 두 번째 사람은 $-3(\text{금전욕}) + 7(\text{구속성 원칙에 따르는 능력})$ 로 4 정도의 도덕적 가치의 행위를 해내었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칸트가 도덕법칙에 반하는 정도와 도덕법칙에 부합하고자 하는 정도를 구별했다는 점과, 옳음에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행위와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옳음에도 정도가 있으며, 도덕적 행위에도 도덕적 가치가 다르게 부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같은 도덕적 행위라도 비교가 가능하며, 더 높은 옳음을 상정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예컨대, 똑같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도덕적 행위는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이성의 통제를 받은 경향성까지 행위에서 발휘하였다면 그 사람의 도덕적 행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칸트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가장 큰 도덕적 가치를 부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부합하는 경향성까지 행위에서 발휘한다면 행위에서 도덕적 가치 평가의 가산(加算)을 받게 된다.

3. 경향성의 양면과 덕 개념의 성립

2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았듯, 비판기 저작에서는 도덕적 행위에 있어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만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경향성의 성질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향성은 제거되거나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로만 남아 있었다. 더불어 경향성은 현상적 자아인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고 도덕법칙을 어기게끔 하는 강한 유혹을 지니고 있기에 필히 배척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기 저작에서는 주로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향성을 부정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설령 그것이 의무에 합치되는 경향성일지라도 그 시기의 칸트의 목적은 현실적인 윤리이론을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학문으로 만드는 것이다. 칸트가 생각하기에 학문의 조건은 보편타당성이기에, 이성적 존재자에게 엄격하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경향성은 윤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다만, 비판기 이후에 자신의 윤리 체계를 현실에 적용하며 현실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도덕형이상학』에서 ‘덕은 의지의 도덕적 강함’이라는 표현으로 재확인되기도 한다(MS-T, A46).

이로 인해 특히 비판기 저작으로 주목받아 왔던 칸트의 윤리학은 경향성이 전혀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경향성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이해되어 왔다. 다만, 그는 응용윤리, 실제 삶에서의 윤리를 비판기 이후 저작인 『도덕형이상학』에 그려내며 몇 가지 경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학문적 논의에서는 경향성이 크게 필요가 없었지만, 실제 삶에서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향성을 필히 수반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경향성을 배척하고 이겨내는 의미와 일부

경향성을 의무와 합치시키며 균열을 최소화한 채 논리를 전개한다. 이런 경향성의 이해와 관점에 따라 비판기 저작에서는 주로 덕 개념이 도덕적이하고자 하는 의지, 경향성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로 규명되었는데,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는 관점이 전환되며³²⁾ 그러한 덕 개념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칸트 스스로가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칸트 또한 덕이 위의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도덕형이상학』에서 드러내고 있다.

‘덕은 의지의 도덕적 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개념이 남김없이 드러나지 않는다(MS-T, A46).’

‘덕은 그 자체로 의무가 아니며, 덕을 점유하는 것 역시 의무가 아니다(MS-T, A46).’

의지의 도덕적 강함으로는 덕을 남김없이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의견인데, 그렇다면,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 성립할 수 있는 덕 개념은 응당 경향성을 포괄하는 덕일 것이다. 비판기 저작의 덕 개념이 경향성과 전혀 섞이지 않으며, 경향성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차원이었다면,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의 덕 개념은 특정 경향성과 동반하는 차원에서 성립하게 된다.

‘삶 자체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기 자신을 잘 대우해주는 것(자기 신체를 허약해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속한다. 이것에 대립하는 것을 삶을 즐겁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색함 때문에 (노예처럼) 자신에게서 박탈하거나 본성적 경향성을 과도하게 (열광적으로) 절제함으로써 자신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MS-T, A123).’

32) 필자는 여기서 칸트가 실제 삶에서의 경향성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았기에 경향성을 부정적으로만 규정했다고 여긴다.

위의 인용에서 보이듯, 모든 경향성을 박탈하거나 과도하게 절제한다면 삶의 기쁨마저 누릴 수 없게 되는데, 칸트가 보았을 때, 이는 의무에도 어긋난다. 그렇다면 옳음에 반하지 않는 기쁨은 장려되어야 하며, 이성으로부터 비롯되고, 이성의 통제를 받는 경향성들 또한 당연히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특정 경향성의 훈련, 배양은 하나의 품성적 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칸트 윤리학 내에서 경향성과 대립하는 덕 개념과 경향성과 함께할 수 있는 품성적 차원에서의 덕 개념이 양립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³³⁾

[표 2] 칸트의 두 가지 덕 개념

비판기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	비판기 이후 칸트 (도덕형이상학,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학문으로서의 덕 형식주의 윤리학으로서의 덕 →경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곧 덕 선의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덕임.	응용윤리(실생활)으로서의 덕 실질주의 윤리학으로서의 덕 →경향성을 계발하는 것이 곧 덕 경향성이 반드시 계발되어 유덕한 품성을 지녀야만 함.

33) 차승한(2020)도 마찬가지로 칸트 윤리학 내에서 두 가지 덕 개념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는 비판기 윤리학에서의 덕을 소극적 덕, 비판기 이후 윤리학에서의 덕을 적극적 덕이라고 규정한다(차승한, 2020: 327).

제 3 장 실질주의 칸트 윤리학과 불완전한 의무

제 1 절 덕 윤리와 덕의무

1. 덕 윤리의 덕 개념

덕 개념은 학자들마다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에, 덕 윤리에서 덕 개념의 범위는 상당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덕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바라보는 학자도 있지만, 덕의 조건을 조금 느슨하게 바라보고 상당한 범위의 덕을 인정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학자들 대부분은 덕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기반하여, 좋음을 우선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이주석, 2015). 그리고 이러한 덕은 응당 추구되어, 우리는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덕을 의무 윤리적 관점, 결과론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 상식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장동익, 2011). 이 중에서 목적론적 관점³⁴⁾은 덕 윤리의 지배적인 관점으로 채택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론적 관점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인간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하는 품성의 상태로 규정한다(이주석, 2015, 402, 재인용).’ 이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은 탁월한(arete) 것이며, 탁월한 삶을 통해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목적론적 관점의 덕 윤리에서 덕 개념은 온전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³⁵⁾ 덕의 목적론적 관점은 ‘행위자의 잘삶이

34) 필리파 푸트, 알레스테어 매킨타이어, 로잘린 허스트하우스, 제임스 왈라스 등의 현대 덕 윤리학자들이 이 관점을 채택한다(이주석, 2015).

35) 덕이 곧 행복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덕함은 칭송할만한 것이긴 하지만, 행복은 칭송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60-61).

나 덕들의 본질적 역할을 빌어 덕을 정의하는데, 이는 인간 성숙(human flourishing)과 잘삶(well-being)의 구성요소나 필수적 조건으로 간주된다 (장동익, 2011: 102).’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관점을 취하는 덕윤리에서 덕은 성품의 훌륭한 특성이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은 아니며, 알아차리고, 기대하며, 가치 있게 생각하고, 느끼고, 욕망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그 소유자에게 잘 정착된 성질이다. 미덕을 가진다는 것은 복잡한 사고방식을 가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³⁶⁾ 이처럼, 덕은 이성과 경험, 감정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부터 바람직한 성격을 지속적으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니듯, 한 번의 유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적절한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표현이 어우러져 그것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갖춰져야 덕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감정을 잘 표현한다. 예컨대, 용기라는 덕을 갖춘 사람은 부정의에 분노할 줄 안다. 감정이 관여하는 영역에 잘 표현하는 것이 덕이고, 표현적 측면에서 감정이 같이 발현되어야 덕스럽다(맹주만, 2011: 34-38). 정리하자면, 덕스러운 사람은 유덕한 행위를 할 때, 특정 상황에 걸맞은 감정을 적절한 정도로 표출한다. 이처럼, 덕 윤리에서 감정은 덕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유덕한 행위에 반드시 수반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덕이란 무엇인가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에 생기는 것들은 세 가지, 즉 정념·능력·성품이므로 덕은 이 중 어느 하나일 수밖에 없다. ... 덕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마음이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자세에 있다고 말한다. ... 이렇듯 덕이 정념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성품(즉 성격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78-79).’

덕은 성품이며, 한 개인의 성격이다. 그래서 반드시 덕은 습관을 통해

36)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ethics-virtue/#Virt> 접속일 : 2022-11-12

서만 배양될 수 있으며, 이 습관은 좋음에 기반한 바람직한 습관이어야만 덕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덕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지하듯, 목적론적 윤리학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 혹은 좋음이다. 우리는 인간의 기능적 차원에서 숙련되고,³⁷⁾ 그러한 탁월성은 기필코 행복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개인의 성격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이 잘 다듬어져 탁월해진다면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삶, 행복한 개인으로 연결될 것이다.

2. 실질주의 칸트 윤리학의 덕 개념

비판기 이후 저작들은 실생활을 고려한 윤리학이기에 실질주의(empirical)³⁸⁾ 윤리학으로도 불린다. 실질주의 칸트 윤리학의 덕 개념은 2장을 통해 살펴보았듯, 경향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것은 의무에 반하는 경향성들이 아니며, 이성에 기초한, 실천이성의 산물로서의 경향성들이다. 이 경향성들은 의무에 결단코 반하지 않으며, 이성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성과 함께 의무를 수행한다. 이런 경향성들을 꾸준히 계발, 배양하여 지속적으로 이성과 함께 특정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곧 습관화이며, 한 개인의 품성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물론 실질주의 칸트 윤리학에서도 형식주의 윤리학과 동일한 덕 개념이 통용되기도 하며,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덕은 단순히 숙련성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훈련으로 습득되고 오래된,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들의 습관으로 설명되거나 평가될 수 없다. 만일 덕이 숙고되고 확고하며 지속적으로 한층 더 정화된 원칙들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술적·실천적 이성에서 나온 다른 모든 체제처럼 모든 경우

37) 비단 이 숙련들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악한 기능과 성품들은 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38) 실용적 인간학이 아닌 경험적 인간학이 도덕이기에 pragmatic보다 empirical이 적절해 보인다.

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유혹들이 일으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MS-T, A9).’

다만,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 ‘덕이 숙고되고 확고하며 지속적’이라면 칸트 또한 새로운 덕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앞서 2장에서 언급했듯, 칸트는 도덕적 강함, 도덕적이고자 하는 의지가 덕이지만, 이 개념이 덕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또 다른 덕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는 덕의무(불완전한 의무)를 언급하며 경향성들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의무라고) 이야기하며, 경향성의 숙련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한다. 주지하듯, 이 경향성은 동물적 경향성과는 다른 경향성이다. 인간은 이성과 특정 경향성들을 계발함으로써 동물성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향해 점차 다가갈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특정 경향성들은 의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덕적 성질들 가운데에는 만일 누군가 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없는 특정한 도덕적 성질들이 있다. 도덕적 감정, 양심, 이웃 사랑, 자신에 대한 존중(자기 존중)이 그것들인데, 이들을 가져야 할 책무는 없다. 이것들은 도덕성의 객관적 조건들로서가 아니라 의무 개념에 대한 감수성의 주관적 조건들로서 그 기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두 감성적이며 이미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들이지만 의무 개념을 통해 촉발되는 마음의 본성적 소질(천성적 소질)이다. 이러한 소질들을 소유하는 것은 의무로 간주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소질들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것들의 힘으로 의무를 질 수 있게 된다(MS-T, A35).’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덕적 감정, 양심, 이웃 사랑, 자신에 대한 존중은 선형적 감정이지만, 이것들을 배양하는 것은 의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이 소질들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것들의 힘으로 의무를 질 수 있게 된다(MS-T, A35)’라는 것이다. 위의 네 가지 감정들은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닌 감정으로, 배양

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더불어, 비판기에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만이 유일한 도덕적 행위의 동기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과는 다르게, 도덕적 감정, 양심, 이웃 사랑, 자신에 대한 존중이 의무를 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은 경향성이 의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암시한다.

경향성들의 힘으로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로도 보이기도 한다. 칸트가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을 정초하며 경향성을 배척했지만, 이후 형식주의 윤리학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경향성이 의무에 필요하다는 것처럼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균열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경향성의 독자적 측면을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을 초래하기에, 이 경향성이 실천이성의 산물이며, 지속적으로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닌 감정이라는 말은 경험적 감정이 아닌 선형적 감정이라는 뜻이며, 이는 이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첫 번째로 도덕적 감정에 대해 말해보면, 칸트는 정념적 감정과 도덕적 감정을 구분한다. ‘전자는 법칙에 대한 표상이 앞서서 감정이고, 후자는 오로지 그 표상에 뒤이어 나올 수 있는 감정이다(MS-T, A36).’ 이 도덕적 감정은 ‘정념적 자극에서 벗어나 순수함을 간직한 채 오로지 이성의 표상을 통해서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MS-T, A36).’ 이로써 칸트가 인정하는 경향성은 외부의 자극과는 무관하며, 이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의무에 부합하는 경향성임이 재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양심은 실천이성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MS-T, A37-A38).³⁹⁾ 모든 사람에게 양심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오류는 양심이 부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주의를 두지 못해 발생한다. 또한, 양심은 나 자신과 관계를 맺으며, 나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9) ‘양심이란 인간에게, 한 법칙의 각 경우에서 그가 의무에서 자유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실천이성이기 때문이다(MS-T, A37-A38).’

세 번째로, 칸트에게 있어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감정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은 경향성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굳이 인간이 의무로서 강제 받아야 할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본능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랑이 의미를 갖는 것은 호의(친절에 대한 사랑)일 때이다. 따라서 타인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의무가 된다. 우리는 인간 혐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친절을 베풀 대상인 인격체를 사랑해야만 하며, 자신이 친절을 베풀었는지 이성을 통해 확인하고 그러한 행위를 사랑하는 것을 단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존중은 독특한 종류의 감정이며, 자기 자신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존중은 자신이 도덕법칙을 이행할 수 있는 인격체이기에 가져야 하는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은 자기 자신과 맺게 된다.

칸트의 감정(경향성)들은 이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특히 현상계의 대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촉발되는 것이라기보다, 도덕법칙과 매개되어 계발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경향성들이 계발된다면, 그것들은 의무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⁴⁰⁾ 의무가 더 잘 수행될 수 있게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 윤리학 내에서도 ‘유덕함’이라는 개념에 경향성이 포함되어 전개될 수 있다.

40) 해외에서는 비판기 이후의 칸트가 경향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처한 도덕적 행위의 동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3. 덕 윤리적 덕과 칸트적 덕의 비교

비판기 저작의 칸트 윤리학의 덕 개념은 분명 덕 윤리의 그것과 명확히 구분된다. 전자는 경향성을 모조리 제압하고 대치하는 개념이지만, 후자는 감정이 덕스러운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덕 윤리는 동기화(motivation)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능한 윤리 이론이지만, 칸트의 윤리학은 동기화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비판기 이후에 성립하는 필자가 언급한 덕 개념은 덕 윤리의 덕과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지점은 국내에서 노영란(2021a)의 논의가 구체적이다. 노영란(2021a)은 칸트의 덕론과 덕 윤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고 상반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노영란(2021a)은 ‘덕의무를 통해 유덕한 품성에서 개별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시하며, 어떤 것을 목적으로 세우는 것은 그것을 행할 동기적인 힘을 유발한다고 짚는다(노영란, 2021a: 142-145).⁴¹⁾

필자가 생각하기에 덕 윤리와 칸트 비판기 이후 덕 개념의 유사한 부분의 첫 번째로, 덕 윤리의 덕 개념과 비판기 이후 칸트의 덕 개념은 감정과 덕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이다. 1절에서 언급했듯, 덕 윤리에서 덕스러운 사람은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데, 상황에 맞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판기 이후 칸트의 덕 개념도 경향성을 배양해서 하나의 품성 상태로 유지해야 성립한다. 예컨대, 자신도덕적 행위를 한 다음, 자신의 행위를 통해 만족하고, 그 만족감을 동기로도 사용하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다. 유사한 부분의 두 번째로는, 감정을 맹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제시된다.

41) 이와 관련해서 Baxley는 선의지에 따르는 법칙에 대한 존경을 계발하여 갖게 된 도덕적 감정을 비롯한 경험적인 여타의 감정들이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Baxley, 2010: 45-46). 또한, Hill은 더 나아가 의무, 즉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없이도 여타의 감정만으로 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도덕적 결함이 없다고 말한다(Hill, 2012: 250-254). Hill의 이러한 해석은 칸트의 도덕적 동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유쾌한 것이나 쾌락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이 헬레네(Helene)⁴²⁾에 대하여 느낀 것처럼 쾌락에 대하여 느끼지 않으면 안 되며, 또 어떤 형편에서나 저들의 말을 되뇌일 필요가 없다. 즉 저들의 말대로, 쾌락을 버리면 잘못된 길에 빠지는 일이 별로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요약하건대) 우리는 중용에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91).’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쾌한 것’과 ‘쾌락’을 경계해야 하고, 자칫하면 쾌락을 버리라고까지 말한다. 감정은 항상 중용⁴³⁾의 상태여야만 바람직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판기 이후 칸트도 경향성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경향성은 이성으로부터 비롯되고,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만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보자. 그런 사람은 악덕인 방탕함에 빠지기 쉬우며 결국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들은 항상 이성과 결부되어 상황에 적절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양되어야 한다. 비판기 이후 칸트도 이와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 도덕적 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의무와 목적을 일치시키는 일이지만, 도덕적 행위에 대한 만족감만이 고려된다면, 경향성이 의무와 이성을 압도하여 독자적으로 횡포를 부릴 수 있다. 더욱이 칸트에게 있어 이성을 능가하는 경향성은 도덕법칙의 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데, 칸트에게 있어 자선을 할 때, 사랑이라는 경향성으로 타인에게 수많은 돈을 주

42)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미녀

43)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며, 상황에 가장 적절한 행위. 이는 이성의 역할이 수반된다.

‘모든 일에서 중간의 상태는 칭찬할 일이지만, 우리는 어떤 때에는 과도의 쪽으로, 또 어떤 때에는 부족의 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92).’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의무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경향성을 마냥 맹신하고 의존한다기보다, 통제된 경향성만이 인정된다는 점을 둘 사이의 유사점으로 짚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둘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부분은 궁극적 목적이 옳음 혹은 좋음에 있느냐는 차이이다. 덕 윤리에서 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좋음이다. 인간의 모든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은 곧 행복해지는 길이며, 옳음을 위한 덕스러움도 결론적으로는 좋음과 연결된다. 반면, 칸트는 옳음을 결코 옳음, 도덕법칙 위에 배치하지 않는다. 만약 좋음이 도덕법칙보다 우선하게 된다면 도덕법칙과 좋음이 충돌할 때, 도덕법칙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가 인정하는 좋음은 도덕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도덕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주에서 성립한다. 이런 점에서 덕 윤리의 덕은 좋음을 우선하는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판기 이후 칸트의 덕은 옳음을 우선하는 덕이라고 할 수 있다(노영란, 2016: 223).

덕 윤리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덕스럽게 사는 것은 행복으로 직결된다. 반면, 칸트 윤리학에서는 행복이 결코 도덕법칙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며, 옳음이 필연적으로 행복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인식론적으로 신을 내쫓았으면서, 『실천이성비판』 변증론을 통해 신을 다시 요청함으로써 최고선이 가능해지게끔 하는 것이다. 옳음과 행복의 상응하는 필연적 연결은 오로지 초월적 존재인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덕 윤리의 덕 개념과 비판기 이후의 칸트 덕 개념을 비교하였는데, 칸트 윤리학 내에서의 모든 덕과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관점에 기반하는 덕 윤리의 덕 개념을 표로 비교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3] 칸트의 덕 개념들과 덕 윤리의 덕 개념의 비교

	비판기 칸트	비판기 이후 칸트	덕 윤리
경향성과 덕의 유기적 관계 인정 여부	X	O	O
경향성(감정)의 독자적 지위 인정 여부	X	X	X
덕은 궁극적으로 옳음을 위한 것	O	O	X

제 2 절 불완전한 의무의 성격과 방법론

1. 자신의 완전성 의무의 성격과 방법론

불완전한 의무는 완전한 의무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였다. 직관적으로 ‘완전’과 ‘불완전’이 우열을 형성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 둘은 똑같은 의무이나, 불완전한 의무는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규정할 수 없기에 ‘불완전한’ 의무이다. 따라서 행위 방법과 행위 수준은 행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칸트는 직접적으로 『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 의무인 동시에 목적인 덕의무를 제시한다. 덕의무는 불완전한 의무⁴⁴⁾로도 치환 가능한데(MS-T, A21), 의무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해서, 의무와 목적이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목적은 그 자체로, 독단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없기에 늘 의무의 안내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즉, ‘의무 개념이 목적을 안내하고 목적에 관한 준칙들을 도덕적 원칙의 기초 위에 세워야만 한다(MS-T, A8).’ 이를 통해,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칸트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의무의 개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책무 지우는 실질적인 측면의 내용을 논하고 싶었던 것이다(송은섭, 2019: 46).’ 이처럼 불완전한 의무를 통해 동기와 성격의 여지를 찾고, 미덕을 지속성과

44) 칸트는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는데, 푸펜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그의 설명을 채택한다. 푸펜도르프는 완전한 의무가 정치적 공동체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자연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이며, 불완전한 의무는 사랑과 자비의 법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지만, 엄밀하게 규정될 수 없다고 제시한다. 이어, 완전한 의무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이어야 하지만, 불완전한 의무는 그렇지 않다. 김성호(2007)는 이에 비추어 완전한 의무는 경향성의 이익을 위한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고, 불완전한 의무는 경향성의 이익을 위해 예외를 허용하는 의무라고 규정한다(김성호, 2007: 97-99).

동화하려는 경향은 칸트에게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⁴⁵⁾ 또한, 불완전한 의무는 광범위한 인간 활동에서 도덕적 가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대인 관계 방법을 제공한다(Herman, 2021: 132). 더불어 완전한 의무는 공적 영역에 가깝지만, 불완전한 의무는 대인 생활, 사적인 역에 가깝다(Herman, 2021: 9, 24-25).

일부 사람들은 칸트의 의무윤리가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여 ‘도덕의 더 높은 비행(higher flights of morality)’을 불가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의무는 도덕의 작은 부분일 뿐이고, 윤리가 단순히 의무로 치환된다면 이런 윤리적 이론은 극도로 빈곤한 이론이 될 것이라며 말이다(Baron, 1987: 237). Herman(2021)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강제적인 원칙 이상의 관계와 자원을 가져야만, 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도덕적 서식지, 도덕 문명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Herman, 2021: 123). 이런 문제는 불완전한 의무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 칸트의 실질적 차원에서의 윤리는 학문과는 다르게 불완전한 의무에 가깝다. 감성계와 예지계의 중첩적 존재인 인간은 오롯이 이성만을 가지고 윤리적 행위를 실천하지 못한다.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현상계에서는 늘 윤리적 행위에 경향성이 동반되는데, 이런 경향성들을 이성적 의지를 가지고 모조리 제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칸트가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세우고자 한 것은 학문으로서의 지위이자 윤리를 가능케 하는 초석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윤리가 학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현실의 인간이 이것을 온전하게 이행할 수는 없다. 즉,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말하는 윤리는 우리의 지향점이자 윤리를 윤리이게 하는 근원이지, 현실에 완전히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칸트 윤리학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존재했는데, 칸트는 비판기 이후 실질주의 윤리학을 다루며 인간의 선천적 감정 몇 가지를 긍정적으로 다룬다. 즉 현실 세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몇 가지 경향성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주지하듯,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

45) <https://plato.stanford.edu/entries/moral-character/#Kant>

접속일 : 2022-11-12

재이다. 윤리는 타자를 지향하며 사회와 분리된 개인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윤리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늘 타자, 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것인데, 불완전한 의무 중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부분은 불완전한 의무가 보다 사회적인 측면임을 시사한다.

필자는 여기서 ‘이성의 통제를 받은 경향성’에 주목하고 이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성의 통제를 받은 경향성은 선천적인 감정이면서도 결코 도덕적 의지에 앞서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의지가 추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욱 촉구할 수 있으며, 다른 경향성들의 유혹을 제어한다. 완전한 의무만 수행하는 사람보다, 완전한 의무를 수행하며 불완전한 의무까지 수행하는 사람은 도덕적 완전성에 가깝고, 행위에 더 큰 도덕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의무이자 동시에 목적인 불완전한 의무를 충족하는 것은 공로(공적)($=+a$)가 성립하지만, 이것들을 위반한다고 해서 죄지음(과실)($= -a$)은 아니며 그저 도덕적 무가치($=0$)일 뿐이다(MS-T, A21). 이와 같은 설명에서 불완전한 의무는 초과 의무(supererogation)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필자는 여기서 불완전한 의무(Imperfect duties)와 초과 의무(supererogation)의 구분을 주로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를 통해 시도하였다. 초과 의무의 현대적 논의를 진행한 Urmson은 초과 의무는 의무가 아닌 칭찬받을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칭찬은 행위보다 행위자의 평가와 관련이 깊으며, 추가적인 일을 했기에 그것은 공로이다. Urmson을 비롯한 Hill(1971)은 “kant on imperfect duty and supererogation”에서 불완전한 의무를 완전히 초과 의무와 동일시하여 의무에서 벗어나는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한다. 또한, 칸트가 의무적인 것과 단지 해야 할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에 대해 Baron(1987)은 불완전한 의무가 의무에서 벗어나는 초과 의무로 규정된다면 칸트 철학 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하며 Hill(1971)을 비판한다. 예컨대 불완전한 의무를 위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특정 행위가 존경할만하지만,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도덕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착하지만 도덕적으로 선택적인 일 사이에 명확한 구분선을 긋기가 어려워진다. 이어

Baron(1987)은 초과의무는 의무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칸트의 초과의무(불완전한 의무)는 의무의 지렛대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짚는다(Baron, 1987: 245). 필자도 Baron(1987)과 마찬가지로 칸트의 불완전한 의무 또한 칭찬받을 수 있고, 공로로 인정받는 것이나, 초과의무와는 다르게 반드시 의무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바라본다.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칸트에게서는 의무이지만, 초과의무적 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다(Baron, 1998: 59). Baron(1998)은 통상적으로 불완전한 의무가 초과의무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럼에도, 초과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는 행위자의 추가적인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 칭찬받을 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개념을 공유한다.⁴⁶⁾

즉, 불완전한 의무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벌칙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키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의무 개념은 필수적이지 않지만, 칸트 철학 내에서 더욱 완전한 도덕성을 구축하기 위해선 필요하다. 차승한(2020) 또한 칸트가 ‘덕의 자리를 의무(obligation)의 차원이 아닌, 초과의무(supererogation)의 차원에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바라본다(차승한, 2020: 325).’ 불완전한 의무와 완전한 의무가 대비되며, ‘완전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불완전한 의무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의무는 여전히 의무라는 점에서 완전한 의무와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우리는 완전한 도덕성을 위해 불완전한 의무까지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Kamm(1985)은 초과의무가 의무보다 우선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희생을 전제하며 초과의무를 결단할 시, 의무보다 초과의무가 먼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희생이 자발적으로 수행될 때, 이 의무는 다른 의무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Kamm(1985)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한다. 만약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저소득자가 평생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친구와 함께 점심 시간을 보내기로 한 약속이 충돌할 때, 전자의 불완전한 의무이자 초과의무가 후자의 완전한 의무보다 우선해야만 한다

46)참조 : <https://plato.stanford.edu/entries/supererogation/>

접속일 : 2022-11-12

(Kamm, 1985: 121). 그는 이에 대해 더 큰 선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Kamm(1985)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의무를 완전한 의무보다 하등한, 열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불완전한 의무는 도덕적 완전성에 기여하며 초과 의무로 작용할 시, 때때로 여타의 의무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만 한다.⁴⁷⁾ 칸트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강제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은 우리가 채택하는 도덕적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⁴⁸⁾

불완전한 의무에 속하는 것은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이다 (MS-T, A14). 자신의 완전성에 대한 칸트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이 의무는 자기 능력(또는 자연소질)을 계발하는 것에서 성립한다. ... 이 같은 완전성은 인간의 내면에서 스스로 입법하는 의지가 그 의지에 따라서 행위하는 능력에 행사하는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이므로 도덕적 감정, 즉 특별한 감각(도덕감)이다. 이 감각은 마치 (소크라테스의 정령처럼) 이성을 앞서가거나 그 판단을 아주 배제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자주 광신적으로 오용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의무기도 한 모든 특수한 목적을 자기 대상으로 만드는 도덕적 완전성이다(MS-T, A15-A16).’

자신의 완전성은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쓰였듯, 도덕적 강인함, 의지적 측면임과 동시에 도덕 행위의 결과로서 작동하는 만족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을 최대한 많이 우리의 관심 안에 포섭할 수 있으며, 도덕 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비롯한 행복⁴⁹⁾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시도는 『실

47) 물론 칸트는 이에 대해 의무끼리 상충할 수 없다고 밝힌다. 신께서 세계를 창조할 때, 의무끼리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며, 의무끼리 충돌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칸트의 의견이다. 다만, 이후 실제 삶에서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 증명되자, 포스트 칸트주의자인 로스(William David Ross)는 어떤 의무가 우선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며, 조건부 의무 개념을 제시해 의무의 충돌을 피해 가고자 하였다.

48) 참조: <https://plato.stanford.edu/entries/moral-character/#Kant>

접속일 2022-11-13

천이성비판』에서 도덕과 행복을 조화시키기 위해 신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상계에서 도덕과 행복의 조화가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선의지로 인해 도덕법칙을 수행한 인격체는 만족감으로 인해 더 많은 대상을 도덕의 목적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다음 도덕 행위까지 수행할 수 있다.

자신의 완전성과 관련하여 칸트는 도덕적 만족감을 제외하고도 여타의 능력까지도 포괄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자연적 완전성은 이성에 따라 제시된 목적들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능력 일반을 계발하는 데에서 성립한다(MS-T, A24).’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곧 완전성이다. 이 세상에 모든 인격적 존재를 자신의 도덕적 관심 안에 넣어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게 하고, 원활한 의무 수행에 적합한 지식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정서적 측면을 계발하는 것 또한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우리의 능력을 계발하는 의무는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지시될 수 있다(Herman, 2021: 124).

노영란(2021b)은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가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에 속한다고 제시한다.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에 대한 양면적인 칸트의 입장은 칸트의 의무 윤리가 추구하는 도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준수하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반영한다. 더불어 칸트는 이 의무를 따르는 것이 지속적인 전진 속에서만 가능할 뿐이라고 말한다(노영란, 2021b: 89).’⁵⁰⁾ 이어 노영란(2021b)은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가 자기 개선에 의무(a duty of self-improve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념과 형식적 측면에서의 덕과 현상과 실질의 차원에서의 덕으로 구분한 뒤, 후자의 덕이 불완전한 의무와 관련된 덕임을 짚는다. 필자는 노영란(2021b)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상과 실질의 차원에서의 덕이 경향성

49) 이는 자연적인 행복이 아닌 도덕적 행실에 대한 만족이며, 칸트는 만족과 행복을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다.

50) 칸트는 완전한 의무로 자기 계발의 의무를 제시했지만, 『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 자신의 완전성이 불완전한 의무라고 말한다.

을 통해 계발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2. 타인의 행복 의무의 성격과 방법론

칸트는 자신의 행복은 (직접적인) 의무가 될 수 없지만⁵¹⁾, 타인의 행복은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⁵²⁾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본능이기에 직접적인 의무로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칸트는 이에 대해 ‘나 자신의 (자연적) 행복 또한 배려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짓된 구속성을 대립시킴으로써 나 자신의 본성적이고 단지 주관적이기만 한 목적을 의무로(즉 객관적 목적으로) 삼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MS-T, A17). 따라서, 타인의 행복만이 의무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앞서, 자신의 완전성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 정도(수준)에 있어 행위자의 재량에 의존하기에 불완전한 의무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 타인의 행복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경향성은 감사, 사랑, 존중, 공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맹목적인 사랑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칸트가 『도덕형이상학』에서 직접 제시한 자선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칸트는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자선을

51) 자신의 행복은 간접적인 의무로만 성립한다. 행복하지 않다면 의무를 어기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GMS, A12). 다만 이 행복이 직접적인 의무가 된다면 도덕법칙과 행복이 상충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모르게 되기에 행복은 도덕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도덕법칙보다 하위에 자리해야 한다. 최소인(2020)은 인간이 도덕법칙과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도덕법칙에 반하거나 어긋나지 않는 이상,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한다며 도덕과 행복의 조화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52) 앞에서 다루었던 자신의 완전성 또한 그러하다. 자신의 완전성은 의무로 성립하지만, 타인의 완전성은 ‘자신의 의무 개념에 따라서 자기 목적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성립하기에, 그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MS-T, A14). 따라서 타인의 완전성은 의무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 묻는다. 이때 사랑만을 강조하여, 크게 자선을 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 칸트에게 있어 모든 인간은 동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지니는데, 내가 타인에게 큰 자선을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그가 나에게 의존하게끔 만든다. 그렇기에 나는 사랑만 가지고 이웃, 타인을 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칸트는 사랑과 존중의 관계에 대해 시사한다. 나의 맹목적인 사랑이 오히려 그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상대방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을 도덕적 관심 안에 포착해야 한다. 사랑을 통해 인간은 서로 가까워질 수 있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와 반대로, 존중은 상대방과 나를 적절하게 거리 두게끔 한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그에 따른 지배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존중이다. 인간은 사랑과 존중 사이에서 이성을 통해 균형을 잡으며 중용을 발휘해야 한다.

‘누군가에 대해 사랑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나는 동시에 타인을 의무 지운다. 나는 그를 위해 공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존경의 의무에 주목함으로써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을 의무 지우며, 타인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 안에 설정할 권한이 있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나를 나의 경계 안에 붙잡아둔다(MS-T, A119).’

다음으로 감사는 자신에게 친절을 행한 인격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감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더 큰 친절을 행하게 하기 위한 영리함의 준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는 더 큰 친절을 위한 수단이라 아니라 그 자체로 의무가 된다(MS-T, A127).

마지막으로 인간은 공감을 통해 타인이 처한 상황과 타인이 바라는 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공감은 타인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타인과 함께 같은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에 이바지한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인을 우리의 도덕적 관심사

로 포착하고, 사랑, 자선, 존중, 감사, 공감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결국 필자가 보았을 때, 타인이 얼마만큼 행복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 자선, 존중, 감사, 공감을 적절하게, 적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3. 품성의 계발과 덕스러운 칸트의 윤리학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 모두 구속성이 넓은(느슨한) 불완전한 의무이다. 완전한 의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라면, 불완전한 의무는 완전한 의무로 구속할 수 없는 도덕 행위들과 도덕의 관심 대상을 포착하게끔 한다. 비단 이성적 존재자에게 초과의무를 촉발시키고, 현실에서 수많은 타자를 목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순전히 이성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람의 동기적 요소를 자극하고,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타인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응당 정서(경향성)의 측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경향성을 동반해야 하며, 이러한 경향성들은 꾸준히 마음에 자리 잡아 품성이 되어야만 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 칸트의 덕이 경향성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한 의무에 동반되는 경향성은 반드시 의무에 부합하며, 의무를 보조하는 경향성들이다. 여기서 비판기 저작의 칸트와 비판기 이후 저작의 칸트의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칸트가 언급한 경향성들만 품성적 계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칸트가 언급한 경향성 말고 다른 경향성을 언급한다면, 그것이 의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의무에 반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경향성들이 인정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품성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품성은 꾸준히 계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품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통해 칸트 윤리학도 충분히 덕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칸트 철학 내에서 유덕함이 성립하며, 칸트적 유덕함은 냉랭한 비판기 저작의

엄격함을 해소한다.

여태까지 수많은 윤리학자는 칸트의 윤리학이 감정을 무시, 배제했기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가해왔다. 물론 칸트 윤리학이 덕 윤리나 공리주의보다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나, 칸트의 목적은 설득력 있는 윤리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윤리를 정초하는 것이었기에 당연히 엄격하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칸트의 저의나 목적(학문으로서의 윤리)을 무시한 채 비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학문으로서의 윤리가 실제 삶에 적용되었을 때의 모습을 고려하며, 칸트는 나름대로 학문적 윤리학을 훼손하지 않고 여러 감정을 다루기도 하였다. 특히 칸트는 ‘행복한 자선가’ 사례로 인해 현실 세계에서 인간은 늘 불행해야 하고,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행복은 신에게만 기대야 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⁵³⁾ 다만,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 칸트는 보다 생생한 윤리 체계를 전개한다. 인간은 도덕법칙에 대치되지 않는 한 행복을 추구해도 괜찮으며,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감정을 세세하게 규명하여 자신의 윤리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칸트의 유덕함은 의지적 차원으로만 이해되며, 유덕하다는 말은 거의 덕 윤리의 전유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칸트의 비판기 이후 저작들을 보았을 때, 불완전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여러 경향성들을 품성적으로 계발해야 하고, 그러한 품성적 계발이 곧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 모두를 수행케 하는 도덕적 완전성의 조건으로 드러났다. 이런 측면에서 칸트의 윤리학도 충분히 ‘품성적으로 덕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3) 백중현(2012)은 칸트가 도덕과 행복의 화해를 신을 통해 시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예지계에서 감성적 필요 욕구란 없기에 감성적 만족은 필요하지 않으며, 영혼 또한 욕구가 없기에 칸트적 최고선의 설정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가능한 세계(지금 세계, 현상계)의 최고선으로, 『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 언급되었듯, 도덕 행위를 통한 만족, 즉, 도덕적 감정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짚는다.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 감정을 배양하여 윤리적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함께 복돋아 가며 살아갈 수 있다(백중현, 2012: 46-54).

제 4 장 칸트 덕론의 윤리교육적 함의

제 1 절 교과서에 드러난 칸트 윤리학의 교육적 한계

1.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드러난 칸트 이해

도덕·윤리과에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칸트 윤리학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토대로 도덕·윤리과에서 어떻게 칸트를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015 개정 윤리와 사상 검정 교과서는 총 다섯 종류로, 교학사(황인표), 미래엔(정창우), 비상교육(류지한), 씨마스(박찬구), 천재교과서(변순용)가 해당된다. 필자는 위 다섯 종류의 교과서에서 칸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칸트 윤리학이 제시된 단원명은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로 대체로 같으며, 교학사(황인표)의 칸트 윤리학의 내용은 144p-149p에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며, 아무리 나쁜 결과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도덕 규칙들이 있다(황인표 et al., 2018: 145)’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의무론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를 직접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하기가 진행된다.

[표 4] 교학사 『윤리와 사상』 활동하기 146p

할 수 있는 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인데, 그에 더해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허영심이나 자신의 이익이라는 다른 동기 없이도 주위에 기쁨이 퍼져 나가는 것을 내심 즐거워하며, 자기가 한 일로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것에 흥겨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아무리 ‘의무에 맞고’, 또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참된 도덕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준칙에는 도덕적인 내용, 즉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하는 행위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칸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1. 모둠별로 자신이 행한 선행의 사례를 두세 가지씩 찾아보시오.
2. 선행의 사례가 ‘의무이기 때문에’ 하였는지 검토해 보시오.
3. ‘의무이기 때문에’한 행위가 아니라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토론해 보시오.

활동하기에서도 비판기 저작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를 인용하였으며, 활동하기 문제들도 지극히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칸트 저작이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만 인용되어 있었으며 자율, 정언 명령, 선의지를 설명하고 주로 비판기의 칸트, 형식주의 윤리학을 주로 제시하는 형태로 교과서가 쓰여 있었다.

다음으로 미래엔(정창우)의 칸트 윤리학 서술은 142p-146p이며, 의무론, 실천 이성, 선의지, 정언 명령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래엔은 칸트 저작 중 『윤리 형이상학 정초』, 54) 『실천 이성 비판』을 직접 인용하며 칸트 윤리학을 설명한다. 인용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54) 독일어 Sitten의 번역을 두고, 백종현 교수는 윤리로, 칸트 학회에서는 도덕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미래엔 143p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칸트, 『실천 이성 비판』 -미래엔 143p

미래엔의 칸트 서술 역시 형식주의 윤리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직접 인용한 칸트 저작 또한 비판기 저작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비상교육의 칸트 서술은 16p-21p이며, 경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상세히 서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여기에서도 경향성에 도덕적 가치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경향성을 긍정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상교육에서는 자유 의지, 자율, 선의지, 도덕 법칙, 정언 명령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고, 『실천이성비판』만을 직접 인용하였으며, 인용 문구는 미래엔과 같다. 특히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자연적 경향성과 도덕적 삶이 전혀 어우러질 수 없으며, ‘도덕적 삶은 자연적 경향성의 유혹이나 압박과 상충하는 것(류지한 et al., 2018)’이라고 추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씨마스의 칸트 윤리학은 142p-147p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행위의 동기로서 경향성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칸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준칙이다(박찬구 et al., 2018).’라는 문구이다. 씨마스에서는 『실천이성비판』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였다는 게 특징이며, 선의지, 동기, 의무, 도덕 법칙과 정언 명령, 자율과 인간 존엄성이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재교과서의 칸트 윤리학은 136p-140p로 제시되어 있다. 경향성과 관련된 서술로, ‘선의지를 중시하는 칸트는 이기적인 의도에서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거나,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 따라 우연히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의무이기 때문에 행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변순용 et al, 2018).'라는 구절이 해당된다. 천재교과서에서는 선의지,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자유의 법칙, 정언 명령, 보편주의와 인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윤리 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다섯 종류의 검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다섯 종류의 검정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모두 비판기 저자인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만을 직접 인용하였으며, 형식주의 윤리학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고, 경향성, 감정에 대한 긍정적 서술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2. 감정적 측면의 소외

형식주의 칸트 윤리학의 목표는 윤리를 학문으로 건립하는 것이기에 주관적 영역인 감정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기가 힘들다. 학문으로 성립하는 요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그것은 보편타당, 객관적 필연성의 영역에 해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섯 종류의 검정 교과서 모두 감정에 대한 긍정적 서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몇몇 교과서는 형식주의 칸트 윤리학의 덕 개념과 선의지에 비추어, 자연적 경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하기도 한다. 다만 형식주의 윤리학의 이러한 요소는 덕 윤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칸트 윤리학에는 감정이 배제, 무시되었다며 비판하는 점과 상통하기도 한다. 칸트 학계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비판기 이후 저자인, 특히 『도덕형이상학』 덕론을 연구한 뒤 칸트도 인정하는 감정이 있다고 반박한다. 칸트가 감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논문이 제법 나오자 2023 EBS 『수능완성』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는 학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내기까지 한다.

01 칸트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며 선의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보았다.

정답찾기 ㄷ.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인 준칙이 보편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준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ㄹ. 칸트는 결과에 상관없이 도덕 법칙이나 의무를 따르는 행위는 옳고, 위반하는 행위는 그르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ㄱ.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ㄴ. 칸트는 행복이 매우 불분명한 개념임을 지적하고,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할 것은?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 뿐이고, 주관적으로는 이런 실천적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다. 따라서 나의 모든 경향성을 버리더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사례>

고등학생 A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려 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친구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 왔다. A는 그 친구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평소 갖고 싶었던 스마트폰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② 동정심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행동하세요.
- ③ 보편적 원리인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④ 욕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⑤ 도덕 법칙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세요.

② 칸트는 동정심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도덕적 행위와 관련하여 배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인들과 함께 괴로워함 그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그들의 운명에 대한 능동적인 동정이고, 그러므로 종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함께 괴로워하는 자연적인 감정을 계발하고, 그 감정을 도덕 원칙들과 이에 맞는 감정에 의한 동정을 위한 그토록 많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간접적인 의무이다.”

사상가는 칸트이고 정답은 ④이지만, ②는 오답이 아니며 해설에서는 칸트가 동정심을 도덕적 행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고 밝힌다. 이 문제를 보았을 때,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 감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칸트가 인정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2, 3장에서 다뤘듯, 칸트가 인정하는 다수의 경향성이 분명 있기에, 비판기 이후 칸트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문제는 문제가 없다. 다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비판기 칸트만을 담아내고 있기에, 덕 윤리에서 비판하는 감정의 소외적 측면이 여전히 타당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⁵⁵⁾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에서 동정심이라는 자연적 경향성을 서로 다르게 보고 출제하였기에 윤리 교사와 학생들은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비판기 이후의 칸트 윤리학을 접한다면, 칸트가 분명 모든 경향성을 배제하거나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질주의 윤리학이 아니라 형식주의 윤리학에 치우친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이런 칸트 윤리학의 풍부한 점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칸트 윤리학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칸트가 감정을

55) 만약 칸트 윤리학의 균열이 학계에 정론으로 성립한다면, 칸트도 비트겐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비판기 칸트와 비판기 이후 칸트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위의 『수능완성』 문제는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된다. 더욱이 현재 논쟁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칸트가 감정을 인정했다는 문제들이 해당 문제 말고도 종종 보인다.

모두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까지 보았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윤리학이라고 꼬집는다. 하지만, 비판기 이후의 칸트 윤리학의 내용까지 교과서에서 다룬다면, 학생들은 좀 더 생생한 칸트 윤리학을 접하게 된다. 실질주의 윤리학은 형식주의 윤리학과는 다르게 실제 삶에서의 윤리에 대해 칸트가 논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도덕감정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 다루어지는 자연적 경향성들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배제해야 하는 경향성은 의무에 반하는 것들이며, 의무에 반하지 않고 의무에 부합하는 경향성들은 칸트가 인정했다는 서술을 추가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엄격한 칸트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일회적 측면의 도덕적 가치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모두 행위를 기반으로 도덕적 가치 여부를 확인하기에 단순히 일회적이다. 도덕적 가치 매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행위에 있기 때문이다.⁵⁶⁾ 교과에서는 여전히 가치 있는 행위와 가치 없는 행위로 나누어 놓고만 있어, 한 행위만 가지고 도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칸트는 ‘덕’ 개념을 들고 오며 도덕적 강함으로서의 하나의 상태를 상상하게 한다. 예컨대, 도덕적 강함으로서의 덕을 배양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도덕적 강함으로서의 덕을 갖추지 않는 사람보다 훌륭하다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비판기에 주로 성립하는 덕 개념도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는다. 이런 덕 개념을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한 사

56) 인간이 지닌 도덕적 가치는 모두 존엄하다. 그런 측면에서 행위자를 대상으로 도덕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칸트에게 있어 도덕적 가치 평가의 대상은 오로지 행위에만 해당한다.

람이 한 번의 잘못된 행위를 하였을 때, 여러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를 한 사람이 한 번의 의무에 부합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굉장히 난감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행위의 일회성에만 주목하여 칸트 윤리학을 오해하기가 쉬워지며, 일회적 행위에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비판기의 칸트 덕 개념만이라도 도입된다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덕을 갖추라고 꾸준히 교육할 수 있다. 이런 덕 개념을 배양한 학생은 안정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며 한 번의 행위만으로 도덕적 평가에 사로잡히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더욱이 필자가 주장한 비판기 이후에 성립하는 덕 개념은 더욱 설득력 있게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칸트가 말하는 형식주의 윤리학에서의 덕 개념은 다분히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일 뿐이기에 현실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현상계에도 속한 인간에게 경향성을 완전히 제압하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칸트 또한 의식했으리라 짐작한다. 그렇기에 경향성, 감정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던 칸트가 비판기 이후에 자신의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을 실제 세계에 적용하며 경향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학생들은 도덕적 감정(도덕 행위에 대한 만족), 양심, 이웃 사랑, 자신에 대한 존중, 감사, 사랑, 존중, 공감에 칸트 의무로부터 어긋나지 않음을 주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옳음을 우선하는 덕을 배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덕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절에서 깊이 다루고자 한다.

제 2 절 통합적 윤리교육 교수체제

1. 원칙과 품성의 통합

통합의 유형은 통상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두 요소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통합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한 요소를 중심으로 다른 요소를 포섭하는 방식, 세 번째는 두 요소의 일부를 각각 추출하여 새로운 모델로 탄생시키는 방식이다. 필자는 이 세 가지 통합의 방식 중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한다. 필자가 2, 3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품성은 항상 이성의 통제를 받으며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합의 방식이 칸트적 통합 방식이다. 원칙을 중심으로 칸트 윤리학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품성적 요소를 포섭하여 교수체제를 제시하시는 것이 본 절의 목적이다.

현대 사회는 다원화되었기에, 한 개인은 서로 다른 공동체에 수없이 속하게 된다. 수많은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덕목은 가끔 한 개인을 갈등에 처하게 만들고, 또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분류하게 하여 투쟁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도덕의 과업은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합의를 도출, 배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특정 품성들을 맹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장려하는 게 아니다. 이처럼 원칙보다 품성을 중시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서로 다른 공동체마다 유덕자를 각기 다르게 상정하는 방식은 이질적 덕목들로 하여금 이웃 공동체를 이해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런 거시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미시적으로도 한 개인이 여러 공동체에 속하고, 또 공동체마다 다른 덕목들을 요구하여 그것들이 상충할 때 오히려 품성은 갈등을 발생시킨다. 반면, 원칙이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품성은 원칙에 부합하는 한에서 장려된다면 이러한 갈등은 종식될 수 있다.

칸트 윤리학은 정언명령을 통해 도덕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교과서에서 자율성의 정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보편주의(제1정언명령)와

인간주의(제2정언명령)라는 형식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윤리 상대주의나 윤리 회의주의로 빠지지 않게 해주며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도덕을 도덕답게 지켜준다.⁵⁷⁾

다만 원칙은 융통성이 없다. 칸트 또한 이를 인지하고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실질주의 윤리학으로 전환할 때, 덕의무(불완전한 의무)를 설정한다. 원칙은 행위 중심적이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따라서, ‘거짓말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와 같은 완전한 의무가 제시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잡한 사회에서 이와 같은 원칙만으로 도덕을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칸트도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불완전한 의무를 실질주의 윤리학에서 다루기 시작한다. 불완전한 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방향만 제시한다. 어떻게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는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는 여유, 재량을 설정함으로써 도덕의 기준을 행위에서 행위자로 전환시킨다. 단순히 도덕법칙의 부합 여부를 놓고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을 넘어, 행위자가 재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무의 정도가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의해 필자는 3장에서 경향성이 개입된 일종의 품성적 덕으로서의 덕 개념을 주장했다. 주지하듯, 덕 윤리는 행위 중심의 윤리학에서 행위자 중심의 윤리로 전환한 것으로 유명하다. 칸트의 비판기 이후 윤리학은 덕 윤리와 흡사하게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으로, 행위자가 어떤 경향성을 계발하고 품성적으로 유덕하느냐에 따라, 같은 옳은 행위더라도 도덕적 가치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기존의 원칙 중심적이던 칸트의 모습에서 행위자의 품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윤리교육에서 윌리엄 K. 프랑케나(William K Frankena)의 아이디어와 흡사하다. 프랑케나는 의무윤리교육과 덕윤리교육을 상보적으로 추구하며 MEX(Moral Education X, 의무윤리교육)와

57) 만약 윤리에 원칙이 없었다면, 윤리는 단지 그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 정도로만 규정될 것이다.

MEY(Moral Education Y, 덕윤리교육)의 조화를 꾀한다. 프랑케나는 원칙과 품성이 대립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원칙에 따라 행위하려는 성향’을 갖춘 사람임을 밝힌다(프랑케나, 황경식 옮김, 2003: 156). 프랑케나의 이런 상보적 윤리교육체계는 ‘의무나 원칙의 윤리 역시 덕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과 도덕 교육과 도덕 발달의 일부로서 덕성의 계발에 우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프랑케나, 황경식 옮김, 2003: 158).’ 그는 칸트의 말을 빌려 ‘성품(traits) 없는 원리(principles)는 무력하며 원리 없는 성품은 맹목적’이라고 지적한다(유병열, 2006: 78, 재인용). 그의 상보적 윤리교육체계에서 원칙 중심의 성품 통합은 MEX를 중심으로 원칙을 강조하고 그에 따르는 성향을 집중적으로 계발하는 방향이다. 프랑케나는 MEX의 도덕 교육을 실시할 때, 도덕적 ‘지식 속에 담겨 있는 도덕적 명령의 근거(the rational of moral command)를 밝혀 알게 함으로써 합리적 도덕을 형성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유병열, 2006: 81). 그의 상보적 윤리교육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6] 프랑케나의 상보적 윤리교육체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도덕(nonmoral)이 아닌 도덕적으로 되는 것 ② 원리나 판단에 의해 삶을 영위하는 성향을 습득하는 것 ③ 행위에 대한 판단과 도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을 습득하는 것 ④ 도덕 판단과 결정의 궁극적 기초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근본적 일반 원칙, 이상 또는 가치에 대한 신념을 지니는 것 ⑤ 얼마간의 구체적 규범, 가치 또는 덕에 대한 신념을 지니는 것 ⑥ 필요한 정서적·지적 능력과 기능 등을 발달시키는 것 ⑦ 도덕적으로 옳은 또는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는 것 ⑧ 반성적인 도덕적 자율성과 자제력 그리고 정신적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
|--|

①, ③, ④, ⑤는 의무의 윤리와 가까우며 ②, ⑥, ⑦, ⑧은 덕윤리와 관련된다. 필자가 제시한 덕 개념은 이성, 도덕법칙에 반하지 않으며 도덕법칙을 초과적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품성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실질주의 윤리학에 기반한 덕을 배양하기 위해선, 일종의 품성을 계발하기 위해선 원칙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거나, 이성적 추론을 통해 원칙을 찾아 이해해야 한다. 그 이후에 원칙을 기점으로 삼고, 원칙과 비교하며 원칙에 도움되는 자신의 품성을 기르는 방식으로 교수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칸트에 기반한 통합적 윤리교육 교수체제를 고안해보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7] 칸트에 기반한 통합적 윤리교육 교수체제

1단계 : 도덕적 추론으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도덕법칙 발견하기 / 교사가 직접 도덕 원칙 추론의 과정과 도덕법칙 제시하기
2단계 : 의무에 부합하는 감정들을 찾아보기
3단계 : 도덕적 삶의 이야기 공유하기
4단계 : 도덕법칙과 비교하며 삶의 방향 세워보기
5단계 : 구체적 상황에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도덕법칙과 비교하기
6단계 : 내적 자유를 지닌 자신에 대해 존경하기

먼저, 1단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법칙을 찾아내게끔, 교사가 적절한 비계 설정(Scaffolding)을 통해 유도하거나, 직접 함께 도덕법칙을 추론하는 과정에 참여시켜 도덕법칙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도덕에도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도덕적 자아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의무를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감정들이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예컨대, ‘거짓말하지 마라’, ‘타인을 행복하게 하라’와 같은 도덕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를 더 잘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어, 도덕과 관련한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학급에서 공유하고, 도덕법칙과 비교하며 그것이 도덕법칙과 더욱 부합되려면 어떠한지 고민한다. 이어 성찰일지 같

은 것을 활용하여 매일 의무와 연관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것이 도덕법칙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하였으면 좀 더 도덕법칙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수행할 수 있었을지 성찰한다. 이를 통해 도덕적 자아를 개인적 자아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도덕법칙에 자율적으로 다가서며 그 의미를 되살리려는 본인에 대해 존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좋음과 옳음의 지향점과 그 관계

서양 윤리학에서는 옳음의 윤리학과 좋음의 윤리학⁵⁸⁾이 있다. 옳음의 윤리학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칸트의 윤리학이다. 칸트는 이성의 아프리오리(a priori)한 원리로 보편타당한 학문을 건축하고자 하였고, 보편주의(제1 정언명령)를 제시한다. 보편주의를 통해 그는 구체적인 의무들을 도출해내고, 윤리를 마치 수학처럼 공식화하여 엄격한 옳음을 구축해냈다. 다만, 그의 이러한 방향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렇기에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물론 그가 현실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윤리 이론을 고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윤리를 학문으로 정초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윤리를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로부터 철저히 방어해내는 구실을 한다.

칸트가 학문으로서의 윤리를 정초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엄격성과 형식성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보편타당하게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그는 비판기 저작에서 경향성 모두를 배제하는 문장들을 서술하기도 하여, 행복을 간접 의무라고는 하였지만, 인간의 좋음에 대해 다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좋음에는 어떠한 도덕적 가치가 성립하지 않으니 말이다.

58) 윤리학에서 좋음은 공리적 가치, 외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 기여적 가치, 최종적 가치를 포괄한다(프랑케나, 황경식 옮김, 2003: 191-192). 본 논문에서 말하는 좋음은 주로 만족감, 행복을 뜻한다.

이 절에서 필자는 칸트에 기반하여 마땅한 윤리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윤리의 지향점은 명백히 옳음에 두어야 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각 개인의 좋음은 합의할 수 없는 개념이기에 결국에는 윤리 상대주의나 윤리 회의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으며, 윤리학이 윤리 상대주의나 윤리 회의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강력한 당위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음을 과연 무시해야만 할까? 좋음을 직접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명백히 윤리의 지향점은 옳음이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옳음에 대치되지 않는 이상, 좋음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좋음은 옳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옳음을 계속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옳음의 지향점은 도덕법칙이요, 좋음의 지향점은 행복이지만 이 둘을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윤리 이론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도덕적임과 동시에 행복할 수 있다면, 굳이 『실천이성비판』 변증론에서 최고선을 위해 신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규칙 공리주의와 덕 규칙처럼 옳음은 좋음에 이바지하기도 하고, 칸트 윤리학 내에서도 좋음은 옳음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물론 칸트 윤리학 내에서의 좋음은 어떠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감정과 행복이 옳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옳음과 좋음은 서로 무관한 관계가 아니며, 옳음을 가장 우선해야만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좋음이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음을 고려한 여러 경향성의 품성화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선 옳음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과서 내용에서나 학생들에게 칸트 윤리학을 가르칠 때, 병리적으로 좋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 칸트는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무를 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에, 행복을 간접 의무로 설정하였다. 더욱이 타인의 행복은 의무이기도 하다. 의무에 대치되지 않는 이상, 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교과서에서도 의무에 부합하는 이상 경향성과 행복을

배제해야 한다고 서술해서는 안 된다.

3. 칸트적 품성 계발과 교육법

필자는 칸트적 품성 계발의 교육법을 『교육론』을 참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칸트의 『교육론』은 초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그가 품성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론』을 살펴보는 의의가 있다. 칸트는 여기서 비판적 지성이나 이성을 통한 교육보다 덕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밑에서부터 출발하는(Bottom-up) 형태의 교육을 취한다. 이를 통해 칸트 윤리학이 단순한 도덕의 원칙 제시라는 오해를 벗고, 교육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점도 짚고자 한다.

칸트는 ‘인간을 교육받아야 할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교육을 양육, 훈육, 육성(교수)으로 분류한다(Pädagogik, A1).’ 이는 각각 유아기, 아동기, 학령기에 해당한다. 훈육은 아동이 지닌 동물성을 인간성으로 전환시켜주는 교육의 소극적 부분이라면, 교수는 인간 본성의 완전성을 가능케 해주는 교육의 적극적 부분이다. 이러한 인간성의 완성은 ‘자연이 예비해둔 인간 안의 모든 소질들을 노력을 통해 끌어내고 계발하는 것이다(송은섭, 2019: 49).’

더불어 칸트는 교육을 자연적 교육(physisch Erziehung)과 실천적 교육(praktisch Erziehung)으로 구분하기도 한다(Pädagogik, A35). 필자는 여기서 교수(육성)과 실천적 교육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자연적 교육은 양육과 훈육을 가리키고, 실천적 교육은 인격성을 위한 교육, 즉 교수인데,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단계에서는 양육과 훈육이 아닌 교수, 실천적 교육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실천적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실천적 교육은 1) 숙련을 위한 고지식한 기계적 육성, 즉 교습적 육성(지식전달자), 2) 영리함을 위한 실용적 육성(가정교사), 3) 도덕성을 위한 도덕적 육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Pädagogik, A36).’ 인간은 기계적 육성을 통해 목표 달성에 능숙해지며, 영리함의 육성을 통해 시민으로 길러지고, 공적 가치를 인지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도덕적 육성을 통해 전체 인류 차원에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육성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인간성의 완성이 가능해진다.

실천적 교육에는 숙련, 처세술, 도덕성이 속한다(Pädagogik, A113). 숙련은 일종의 철저함이며 철저함을 통해 능력을 숙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숙달된 능력은 매우 안정적이고 미래에도 예측가능한 행위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숙련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곧 처세술이다. 이는 가치 측면에서 곧 목적이 될 수는 없기에, 도덕성 아래에 자리하게 된다. 이 처세술의 외적 기술이 바로 예의범절이다. 칸트는 여기서 깨끗한 것과 과격할 것을 구분하며, ‘깨끗한 사람은 의욕을 지녔고, 깨끗함은 정념의 절제를 포함한다(Pädagogik, A114)’라고 제시한다.

이어 칸트는 도덕성이 품성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어떤 것을 포기하기를 배우려면 용기와 경향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동정은 기질에 속하는데, 이 기질은 아이들에게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Pädagogik, A114-A115). 필자는 여기서 2, 3장에서 언급했던 바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여긴다. 예컨대, 동정은 바람직하게 쓰이지만, 아이들은 이성적 통제로부터 동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정 그 자체에 치우쳐 감상에만 젖을 위험이 있기에 칸트가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다룬 도덕성을 최종 목적으로 다룬다. 여기서 도덕성의 품성은 도덕적 강함, 경향성을 이겨내는 의지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상의 『교육론』의 내용에서 보았을 때, 필자가 언급했듯,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에서 언급한 형식주의 윤리학은 굉장히 높은 이상점이다. 도덕의 원칙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논리 전개였으며, 그것을 현상계에도 속한 인간이 능수능란하게 곧바로 행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칸트도 교육의 단계를 구분하며, 현실적으로 타인에게 윤리적 행위를 할 때 경향성의 필요를 인정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칸

트의 형식주의 윤리학이 실현하기 어렵다고 해서, 매우 높은 이상향이라고 해서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항상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인지하며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이상향이 없다면 도덕은 또다시 흐려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에 필자는 원칙과 품성이 통합되는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필자는 품성을 단순히 원칙으로 가기가 위한 예비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숙련, 처세술에서는 경향성을 배양하여,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현상계에서 타자와 공존하는 인간은 타자를 윤리적 목적으로 삼아야만 한다. 이때 타자와의 관계에서 윤리적 행위를 할 때, 『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 다룬 특정 감정들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학생들을 최소한의 도덕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불완전한 의무까지 수행하게 하려면 반드시 경향성이 이성의 통제 아래 적절히 배양되어 표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도덕의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도덕 원칙을 가슴에 담고 자신의 행위를 반추해보아야 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과 마찬가지로 『교육론』에서도 덕 개념을 혼용한다.

‘덕에는 공로의 덕, 순전한 책임의 덕, 순결의 덕이 있다. 첫째 덕에는 관용(복수나 안락함이나 소유욕을 스스로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선행, 자기 통제 등이 속하고, 둘째 덕에는 정직, 예의바름, 온화함이 속하며, 마지막 셋째 덕에는 성실, 정숙, 안분지족이 속한다(Pädagogik, A127-A128).’

첫 번째 덕이 도덕적 강함으로서의 덕 개념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덕들은 일종의 경향성이 포함된 품성적 덕이다. 이어 칸트는 현상계에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만 가지고 굳건하게 도덕법칙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청소년을 유쾌하고 좋은 기분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 심정의 유쾌함은 자책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난다. 기분의 평정상태도 마

찬가지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언제나 사회의 쾌활한 사회자로 만들 수 있다(Pädagogik, A145).’

중요한 점은 학생들에게 도덕은 옳음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옳음에 대치되지 않는 이상, 좋음은 충분히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상태는 오히려 옳음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정 경향성들은 의무에 반하는 경향성들을 압도하기도 하며, 옳음이 강한 옳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좋음이 결코 옳음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좋음과 옳음이 충돌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옳음을 목적으로 두어야 하고, 옳음에 반대되는 경향성의 유혹적 측면인 좋음을 옹당 제압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옳음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옳음을 숙련한 학생은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에서 올바른 경향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경향성을 분간할 수 있다. 칸트는 최종적인 이상의 단계로 도덕성을 제시했고, 그러한 도덕성은 확고한 결의적 차원에서의 품성이다. 이는 경향성에 맞서 순전히 준칙에 따라 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옳음을 명확히 분간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이 곧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칸트적 도덕교육의 인재상은 다음과 같이 성립할 수 있다. 옳음을 능숙하게 언제나 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옳음을 경향성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경향성이 의무를 위협할 때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인재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재는 어떤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가? 『교육론』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학생은 이성으로부터 비롯된 의무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 칸트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 문답법을 제시하였는데, 교사는 문답법을 통해 적절한 비계 설정(Scaffolding)을 하여 학생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성을 사용하여 의무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컨대, ‘거짓말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와 같은 보편 법칙을 함께 추론한 뒤, 정언명령을 통해 올바른 준칙을 도출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 칸트 윤리학에서 부족한 점으로, 법칙은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준칙은 제시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보편주의(제1 정언명령)와 인격주의(제2 정언명령)에 기반하여 스스로 의무에 부합하는 준칙들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성을 잘못 사용하여, 의무에 반대되는 경향성을 이용하여 준칙을 개발하는 학생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 역시 문답법을 통해 교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다음은, 그렇게 만들어낸 준칙을 꾸준히 반복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실천일지를 활용할 수 있다. 실천일지를 통해 의무와 자신이 만든 준칙에 자율적으로 복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의무와 준칙이 몸에 단련되게끔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학생은 의무가 무엇인지 알며, 의무와 준칙으로부터 숙련되어 자연스럽게 의무와 준칙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의무의 복종을 통해 숙련된 학생은 처세술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처세술의 단계에서 학생은 자신의 의무, 준칙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경향성이 무엇인지 찾는다. 또한, 의무와 준칙을 수행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며, 의무와 행복을 일치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용은 학생이 기쁘게 의무를 수행하게 하여 동기적 작용도 가능케 하고, 더더욱 강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예컨대, 쓰레기를 줍는다는 준칙을 만들어 낸 학생은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한 만족감과 더불어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또 다른 미화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 다른 일례로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는 준칙을 만들어 낸 학생은 적절한 동정과 공감을 발휘하며 피상적인 위로에 그치지 않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도덕적 관심사로 포섭한다. 이러한 방식은 의무를 행하는 실질적인 만족감을 동반케 하고, 더더욱 초과적인 의무 수행을 가능케 만든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코 이 경향성이 홀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항상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동반되어야 하며, 적절한 동정과 공감 능력을 발휘토록 이성이 분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성적 작용으로 경향성을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표출하는 사람은 유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경향성이 포함된 품성을 배양한 학생에게 다음으로 강조되어

야 할 점은 경향성으로부터의 자유다. 우리는 경향성을 마치 도구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해야지, 경향성으로부터 엮매이면 안 된다.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칸트적 교육 방법은 바로 사례 제시이다. 칸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난파선에서 사람들을 구하려다 자기 생명을 잃은 경우’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한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가 이러한 실례에서 인간적 본성이 그러한 모든 것을 넘어 위대한 고양으로 나아갈 능력이 있음을 확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실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고 고양됨을 발견한다’라고 말한다(KpV, A283). 이런 사례들은 법칙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며, 경향성보다도 우선하여 우리 안의 도덕법칙을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도덕적 삶의 이야기를 제시하기 위해 사례 제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의무의 법칙은 우리가 이 법칙을 준수할 때 느끼는 적극적 가치에 의하여, 우리의 자유에 대한 의식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존경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들어온다. 내면적 자기 검증을 할 때 자기 눈에 자신이 경멸받을 만한 자, 비난받을 만한 자로 보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인간에게 없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은 충분히 뿌리내린 것이 된다. 이제 모든 선한 도덕적 심정은 이러한 충분히 뿌리내린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에 접목될 수 있다. 이런 일[자기 눈에 자신이 경멸받을 만한 자로 보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속하고 부패한 충동이 마음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최선의 파수꾼, 아니 유일한 파수꾼이기 때문이다(KpV, A287-A288).’

제 5 장 결론

칸트 윤리학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형식주의 윤리학을 넘어 실질주의 윤리학까지 나아가야 한다.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성립한 학문으로서의 윤리는 비단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그대로 실제 삶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실질주의 윤리학에서 칸트는 다양한 감정들을 의무라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비판기에서 엄격하게 다루었던 유일한 도덕적 감정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만 사용되었지만, 비판기 이후로 넘어가며 칸트는 도덕 행위에 대한 만족감 또한 도덕적 감정으로 사용하며 긍정한다. 이런 개념의 변화는 분명, 칸트가 자신의 이상적이면서도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 짐작한다.

칸트를 이해할 때 주로 연구되거나 사용되었던 것은 비판기의 저서이다. 사람들은 『도덕형이상학 정초』나 『실천이성비판』에서 나온 이해를 바탕으로 칸트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칸트 이론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감정을 무시한다는 비판으로 직결되게끔 하였다. 국내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비판기 이후, 특히 『도덕형이상학』의 덕론 부분을 통해 칸트가 도덕 행위의 동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리라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칸트가 인정한 다양한 감정들을 최대한 이성과 결부시키며, 칸트 윤리학의 균열을 일으키지 않은 채 해석해보려 노력했다. 칸트가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만이 동기로 있을 때, 해당 행위는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고 언급한 문장 때문에, 비판기 저작과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여실히 존재했다.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언급한 문장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 담긴 칸트의 의도를 살펴봐야 균열은 해소될 것

이다.

칸트의 윤리학은 완전한 의무만 중요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의무까지 포괄해야만 한다. 완전한 의무는 사회가 성립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불완전한 의무는 우리 사회에 도덕 문명을 건립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자신의 윤리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촉구시키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불완전한 의무를 통해 가능해진다. 완전한 의무가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불완전한 의무는 우리네 삶을 풍부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 윤리학에서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는 두루 조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불완전한 의무의 초과의무적 성격을 짚으며, 그런 초과의무적 성격을 지닌 불완전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성의 통제를 받는 경향성들이 품성적으로 계발되어, 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품성적 덕까지 갖춘 사람은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완전한 의무만 수행하는 이성만을 가진 존재자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교육의 맥락에서 교과서에 담긴 칸트의 윤리학은 감정을 무시하며, 도덕적 행위가 일회적 측면에 그쳤다. 필자는 여기서 칸트의 덕 개념을 조망하고, 교과서에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다면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풍부한 칸트적 모습을 색다르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첫 번째로, 칸트 윤리학 내에서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왔던 도덕적 강함으로서의 덕, 의지적 측면에서 풀이되는 덕, 경향성과 섞이지 않으면서, 경향성을 제압하는 측면에서의 의지적 덕 개념 말고도 새로운 덕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경향성이 개입된 일종의 품성적 덕으로서 비판기 이후 저작, 실질주의 윤리학에서 대두되는 덕 개념이다. 국내에서 칸트가 경향성을 인정하였고, 칸트 윤리학 내에서 또 다른 덕 개념이 존재한다는 연구는 있었으나, 경향성과 덕 개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한 시도는 본 논문이 최초이다. 두 번째로, 국내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덕의무(불완전한 의무)에 대한 개념적 연구를 시

도하였다.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대두되는 완전한 의무 때문에 불완전한 의무는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무가 우리 사회를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성립하게 해준다면, 불완전한 의무는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풍부하게 해준다. 필자는 전통적으로 연구되는 선형적인 차원에서의 칸트 윤리학에서 벗어나 경험적인 칸트 윤리학의 모습을 해당 부분을 통해 분석하고, 불완전한 의무의 성격, 특징, 종류, 초과 의무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세 번째로, 필자는 비판기 이후 성립하는 덕 개념이 칸트 윤리학 내에서 불완전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칸트가 『도덕형이상학』 덕론에서 덕의무(불완전한 의무)를 설명한 후, 여러 경향성들에 대해 다루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고 짐작한다. 불완전한 의무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떠한 품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내적 자유로서의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한다. 행위자가 품성적 덕을 지니고 있다면, 정도가 강한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옳음에도 강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칸트의 『비판기 이전 저작Ⅲ』에 등장하는 부정량 개념을 통해 보였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러한 칸트 연구를 어떻게 도덕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았다. 검정 교과서 5종은 모두 경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을 하지 않았고, 형식주의 윤리학을 중점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칸트가 감정을 배제하였다고 오해를 하고, 칸트 윤리학을 감정이 없는 윤리학으로 받아들여 이해하기 어려워 하였다. 더욱이, 칸트의 덕 개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적 내용은 행위를 일회적 측면에 그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원칙과 품성을 통합하는 교육 모델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도덕의 내용을 좋음과 옳음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측면에서, 교육의 방법으로는 『교육론』에서 돋보이는 문답법과 사례 제시를 활용하였다.

경험적 칸트, 칸트의 감정 연구, 칸트의 덕, 칸트의 불완전한 의무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미 영미권에서는 경험적 칸트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소극적으로 비판기 이후 저작을 해석하고 있다. 한국칸트학회에서 칸트 전집의 번역을 기획한 만큼, 칸트에 대한 총체적, 입체적 이해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칸트 원전

1) 국내 번역본

- Kant, Immanuel. 『도덕형이상학』. 이충진, 김수배 옮김(2018). (과주: 한길사)
- _____.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 김석수, 김종국 옮김(2019). (과주: 한길사)
- _____.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홍우람, 이진오 옮김(2021). (과주: 한길사)
- _____. 『비판기 이전 저작Ⅲ (1763~1777)』. 박진·김광명·김화성·강병호·임승필·김상현·김상봉·홍우람 옮김(2021). (과주: 한길사, 2021)
- _____. 『논리학, 교육론』. 이엽, 김창원, 박찬구 옮김(2021). (과주: 한길사)

2. 국내 문헌

1) 단행본

- 김종국(2013). 『논쟁으로 통해 본 칸트 실천철학』. (과주: 서광사)
- 문성학(2022). 『칸트 윤리학의 균열』. (경기: 북코리아)
- 맹주만(2019). 『칸트의 윤리학』. (서울: 어문학사)
- _____(2020). 『이성과 공감』. (서울: 어문학사)
- 박찬구(2006).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과주: 서광사)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2013). (서울: 창)
- 엘리자베스 보졸라. 『도덕 발달의 이론과 적용』. 정창우 옮김(2018).
(서울: 울력)
- 윌리엄 프랑케나. 『윤리학』. 황경식 옮김(2003). (서울: 철학과현실사)
- 유병열(2006). 『도덕교육론(2판)』. (경기: 양서원)
- 정창우(2020).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2판)』. (경기: 교육과학사)
- _____ (2020). 『도덕교육 연구 및 실천의 방향과 과제』. (경기: 교육과
학사)
- _____ (2022). 『변혁적 도덕 역량 증진을 위한 도덕교육론』. (경기 :교
육과학사)
- 진교훈, 박찬구 외(2020). 『사랑 :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사
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205-222

2) 논문

- 김성호(2007). 「칸트 윤리학에서 덕의 개념」. 『가톨릭철학』 제9호. 가
톨릭철학회.
- 노영란(2016). 「칸트의 덕개념의 특징과 의의」. 『철학논총』 제85집.
새한철학회.
- _____ (2021a). 「칸트 덕론에서 덕의무의 성격과 의의」. 『도덕 윤리과
교육』 제70호. 도덕윤리과교육학회.
- _____ (2021b). 「덕과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 『철학논총』 제105집.
새한철학회.
- 맹주만(2010). 「칸트와 ‘행복한 자선가’」. 『범한철학』 제56집. 범학철
학회.
- _____ (2011). 「칸트의 덕과 덕-감정」. 『칸트연구』 제28집. 한국칸트
학회.
- 박찬구(2004). 「덕 윤리와 칸트 윤리」. 『윤리연구』 제57집. 한국윤리
학회.

- 박윤희(2010). 「『도덕』 교과에 있어서 칸트의 윤리 이해 연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백중현(2012). 「칸트에서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 『철학연구』 96. 철학연구회.
- 심장후, 노철현(2016). 「덕 윤리학에서의 덕 개념과 교육」. 『한국철학논집』 48. 한국철학사연구회.
- 송은섭(2019). 「칸트 덕론과 덕의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이원봉(2006). 「칸트 윤리학과 감수성의 역할」. 『칸트연구』 Vol.18. 한국칸트학회.
- _____ (2011). 「칸트 윤리학과 도덕교육론 : 도덕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통합 가능성」. 『생명연구』 21. 생명문화연구소.
- 이주석(2015). 「덕 개념과 윤리학 : 윤리학에서 덕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 『철학논총』, 80(2). 새한철학회.
- 이원봉(2020). 「칸트 윤리학과 도덕적 자살의 가능성」. 『철학논집』 Vol.62.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임승필(2018). 「칸트 윤리학의 세속적 성격과 종교적 성격 - 칸트의 『윤리학 강의』를 통한 해명-」. 『철학』 Vol.137. 한국철학회.
- 장동익(2011). 「덕 윤리학을 위한 덕 개념 고찰」. 『범한철학』, 60(1), 범한철학회.
- 차승한(2019). 「칸트 실천철학에서 나타나는 균열의 해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 _____ (2020). 「칸트의 덕 이론과 윤리학적 교수법」. 『한국초등교육』 제67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최소인(2020). 「인간 : 이성과 감성 사이의 존재 - 칸트 철학에서 이성과 감성의 대립과 조화의 문제-」. 『철학논총』 99. 새한철학회.

3) EBS 교재 및 교과서

- EBS교육방송 편집부(2022). 『EBS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경기: EBS한국교육방송공사)
- EBS교육방송 편집부(2022). 『EBS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경기: EBS한국교육방송공사)
- 류지한 외 8인(2018).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비상교육)
- 박찬구 외 5인(2018).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씨마스)
- 변순용 외 8인(2018).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천재교과서)
- 정창우 외 9인(2018).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Mirae®)
- 황인표 외 9인(2018).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교학사)

3. 국외문헌

1) 단행본

- Baxley, A. (2010). *Kant's theory of virtue: The value of autocracy* (Modern European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A. (2014). *Kant on Emotion and Value* (Philosophers in Depth). London: Palgrave Macmillan.
- Frierson, P. (2014). *Kant's Empirical Psycholog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6-166
- Hill, Thomas E. Jr.(2012). *Kant's Tugendlehre as Normative Ethics, in Lara Denis ed, Kant's Metaphysics of Morals: A Critical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4-255
- Herman, B. (2021). *The Moral Habita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OSO.

Louden, R. (2000). *Kant's impure ethics: From rational beings to human beings*. Oxford University Press.

2) 논문

Baron, M. (1987). "Kantian Ethics and Supereroga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84(5), 237-262.

Baron, M. (1998). "Imperfect Duties and Supererogatory Acts". *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 Annual Review of Law and Ethics*, 6, 57-71.

Borges, M (2002). "Kant on sympathy and moral motives". *Ethic -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Moral Philosophy*, 1(2), 183-199.

Feinberg, J. (1961). "Supererogation and Rules. *Ethics*", 71(4), 276-288.

Henson, R. (1979). "What Kant Might Have Said: Moral Worth and the Overdetermination of Dutiful Ac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88(1), 39-54.

Herman, B. (1981). "On the Value of Acting from the Motive of Duty". *The Philosophical Review*, 90(3), 359-382.

Holberg, E. (2016). "The Importance of Pleasure in the Moral for Kant's Ethics".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54(2), 226-246.

Kamm, F. (1985). "Supererogation and Obliga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82(3), 118-138

McCarty, R. (1993). "Kantian Moral Motivation and the Feeling of Respect".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1(3), 421-435.

Oakley, J. (1990). "A Critique of Kantian Arguments against Emotions as Moral Motives".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7(4), 441-459.

3) 온라인 사이트

<https://plato.stanford.edu/>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bstract

A study on the virtue concept and imperfect duties of Kant's ethics

Park, Jinsung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t's ethics is rational-centered ethics, and it is widely known that it has moral value only when all inclinations are excluded. Obviously, inclinations in moral behavior are likely to lead humans to the wrong path, and if inclination becomes the only motivation in moral judgment, the action becomes worthless. For humans, who are overlapping beings belonging to the phenomenon world and the intelligible world, I wondered whether all inclinations really played no role in morality. Kant's critical descriptions of inclinations stand out in his critical period,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and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but his post-critic writings "The Metaphysics of Morals" and "Anthropology from a Pragmatic Point of

View" point of view also point out that emotions, virtues, and joy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human life and ethics. The guidance of reason, controlled innate inclination, suppresses the inclination against other duties, but makes humans virtuous, enabling broader moral integrity.

Referring to these parts, it will be revealed that there is another concept of virtue other than the concept of virtue that has been traditionally understood within Kant's ethics. Mainly, Kant's concept of virtue was found to be contrary to inclination and to overcome inclination. However, after the critical period, Kant refers to the duty of virtue (imperfect duties), which is both a duty and an objective, and stipulates that his perfection and the happiness of others fall under this. Here, I saw that perfect duties, such as "Don't lie" and "Don't kill yourself"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right or wrong, but that perfecting oneself and making others happy is often implied not only in the dimension of right or wrong, but also the good or level (degree) commonly referred to in virtue ethics. Kant defined moral feelings, conscience, love for neighbors, and respect for himself as representative a priori feelings, and also acknowledged these feelings, saying that gratitude, love, and respect are duties, and empathy are generally duties. It is necessary to personally develop desirable inclinations that can suppress the inclination against duty while meeting duties to make oneself more perfect and happier for others. Therefore, after the critical period, Kant's concept of virtue should be reflected in the opinion that he should develop character and become a virtuous person by developing desirable inclinations that conform to reason but follow the control of reason. I would like to finally argue that there are two concepts of virtue within Kant's ethics, and that inclination is essential to the concept of virtue after a critical period,

and that if you develop and become a virtuous person and perform imperfect duties, you are closer to moral integrity than those who perform perfect duties only with reason.

In this paper, I want to investigate the role of reason-controlled inclinations and virtues within the Kantian ethics system, as well as how these virtues can be found and how they relate to imperfect duties. Through this, there are inclinations to be recognized within Kant's ethics, and I want to reveal that some inclinations contribute to moral integrity, and these inclinations help conform to duties rather than good that encompasses other positive emotions in moral ethics, but prioritizes right. In Kant's ethics, which has been understood as the present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inciples,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has great implications in morals and ethics education.

keywords : inclination, virtue, imperfect duties, the virtue of prioritizing right, character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21-26455